

[최종보고서]

# 심리학적 설문조사를 통한 농가 행복도 연구

2009. 11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제출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의뢰한 “심리학적 설문조사를 통한 농가 행복도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책임연구원	이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연구원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부교수
연구보조원	서명천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강마야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사) 한국농업경제학회



## < 목 차 >

1. 서론 .....	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나.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2
다. 연구방법 .....	2
2. 행복도의 개념 정립 .....	3
가. 행복도의 개념 .....	3
나. 긍정적정서, 미덕, 강점 .....	6
3. 농가의 행복도 실태 .....	8
가. 실태조사 개요 .....	8
1) 자료수집 .....	8
2) 조사대상 농가의 일반적 특성 .....	9
3) 미응답 농가의 일반적 특성 .....	22
나. 행복도 실태 .....	28
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행복도 .....	28
2) 요인별 행복도 분석 .....	34
4. 농가를 위한 행복도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	50
가. 농업 정책 .....	50
1) 전문인력 경영체 육성 .....	52
2) 소득과 경영안정 강화 .....	53
나. 농촌복지 정책 .....	54
1) 우리나라의 농촌복지 정책 .....	54
2)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복지 정책 .....	58
3) 보건복지가족부의 농촌복지 정책 .....	60
5. 농가의 행복도 개선 대책 .....	65
가. 요약 .....	65
나. 개선 대책 .....	67
1) 경제적요인 강화 정책 .....	67
2) 비경제적요인 강화 정책 .....	68
부 록 .....	70
참고문헌 .....	79

## <표 목차>

<표 2-1> 미덕과 강점 .....	7
<표 3-1> 조사대상지역과 농가 수 .....	8
<표 3-2> 가계소득별 외로움 정도 .....	14
<표 3-3> 균형 잡힌 식생활 정도 .....	17
<표 3-4> 지역별 주관적 의료수준 .....	19
<표 3-5> 지역별 주관적 교육환경 수준 .....	20
<표 3-6> 조사대상농가의 일반적 특성 .....	21
<표 3-7> 미응답 농가의 일반적 특성 .....	27
<표 3-8> 지역별 물질적·심리적 특성 .....	31
<표 3-9> 지역별 소득분포 .....	32
<표 3-10>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행복도 .....	33
<표 3-11> 물질적 요인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	35
<표 3-12> 심리적 요인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	36
<표 3-13> 미덕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	38
<표 3-14> 미덕과 강점에 따른 행복도 .....	39
<표 3-15> 긍정적 정서에 따른 행복도 .....	40
<표 3-16> 연령과 소득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	41
<표 3-17> 여가활동과 소득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	41
<표 3-18> 경지면적과 영농경력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	42
<표 3-19> 소득, 긍정적정서에 따른 외로움 정도 .....	43
<표 3-20> 소득, 긍정적정서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수준 .....	43
<표 3-21> 소득, 긍정적정서에 따른 자녀의 행복수준 .....	44
<표 3-22> 소득, 긍정적정서에 따른 농사일 참여도 .....	44
<표 3-23> 소득, 긍정적정서에 따른 농사 적성도 .....	45
<표 3-24> 연령과 농사일 참여도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	45
<표 3-25> 연령과 농사일 참여도에 따른 긍정적정서의 실현 정도 .....	46
<표 3-26> 영농경력과 농사일 적성도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	46
<표 3-27> 건강과 외로움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	47
<표 3-28>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 비교 .....	47
<표 3-29> 영농경력에 따른 건강상태 비교 .....	48
<표 3-30> 주관적 의료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비교 .....	48

<표 3-31> 미덕의 기타 물질적요인별·농사일 참여도별 차이 .....	49
<표 4-1>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현황(2009) .....	53
<표 4-2> 농가 연평균 소비지출(2003-2008) .....	59
<표 4-3> 농가 연평균 비소비지출(2003-2008) .....	59
<표 4-4>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현황(2006-2009) .....	61
<표 4-5> 노인복지 관련 예산 .....	62
<표 4-6> 연도별 투융자 계획 .....	62

## <그림 목차>

<그림 3-1> 조사대상지역 농가 수 .....	8
<그림 3-2> 성별 분포 .....	9
<그림 3-3> 연령별 분포 .....	9
<그림 3-4> 작목별 분포 .....	10
<그림 3-5> 벼 재배농가 .....	10
<그림 3-6> 과수 재배농가 .....	10
<그림 3-7> 노지채소 재배농가 .....	11
<그림 3-8> 시설채소 재배농가 .....	11
<그림 3-9> 특용작물 재배농가 .....	11
<그림 3-10> 축산 농가 .....	11
<그림 3-11> 기타 농가 .....	12
<그림 3-12> 경지면적별 분포 .....	12
<그림 3-13> 가계소득별 분포 .....	13
<그림 3-14> 건강상태별 분포 .....	13
<그림 3-15> 주관적 외로움 정도 .....	14
<그림 3-16> 주관적 경제수준 .....	15
<그림 3-17> 자녀들의 행복 수준 .....	15
<그림 3-18> 농사일 참여도 .....	16
<그림 3-19> 농사일 적성도 .....	16
<그림 3-20> 균형잡힌 식생활 정도 .....	17
<그림 3-21> 의료수준별 분포(주관적) .....	18
<그림 3-22> 의료수준별 분포(객관적) .....	18
<그림 3-23> 주관적 교육환경 수준 .....	19
<그림 3-24> 행복도별 분포 .....	20
<그림 3-25> 성별 분포 .....	22
<그림 3-26> 연령별 분포 .....	22
<그림 3-27> 연령별 분포 비교(미응답, 응답) .....	23
<그림 3-28> 학력별 분포 비교(미응답, 응답) .....	23
<그림 3-29> 영농경력별 분포 .....	24
<그림 3-30> 영농경력별 분포 비교(미응답, 응답) .....	24
<그림 3-31> 경지면적별 분포 .....	25



<그림 3-32> 경지면적별 분포 비교(미응답, 응답) .....	25
<그림 3-33> 지역별 분포 .....	26
<그림 3-34> 지역별 분포(미응답, 응답) .....	26
<그림 3-35> 성별 행복도 수준 .....	28
<그림 3-36> 연령별 행복도 수준 .....	28
<그림 3-37> 학력별 행복도 수준 .....	29
<그림 3-38> 현업 종사경력별 행복도 수준 .....	29
<그림 3-39> 가계소득별 행복도 수준 .....	30
<그림 3-40> 지역별 행복도 수준 .....	30
<그림 3-41> 소득과 행복도와의 관계 .....	37
<그림 3-42> 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과의 관계 .....	37
<그림 3-43> 미덕과 강점에 따른 행복도 .....	39
<그림 3-44> 긍정적 정서에 따른 행복도 .....	40
<그림 4-1> 농업GDP 및 비중 .....	50
<그림 4-2> 농가인구 추세 .....	51
<그림 4-3> 농업정책 .....	52
<그림 4-4> 농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55
<그림 4-5> 개선이 요구되는 복지정책 .....	55
<그림 4-6> 농촌지역에 특별한 복지정책 필요성 여부(도시민) .....	56
<그림 4-7> 노인복지 관련예산 추이 .....	61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된 농촌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농산물의 개방화의 압박으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더욱 더 자생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자재값 급등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실제 2008년도 농자재 가격상승률을 보면 전년 대비 복합비료의 경우 129.2%, 사료 49.1%의 상승을 보였고, 노령화 추세에 있어서는 1970년 4.9%이던 고령농(65세 이상) 비중이 2000년 21.8%, 2007년 32.1%로 급속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고령농 증가는 농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노후대책 부재와 건강 의료문제로 인한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농촌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농촌 복지정책이 농가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생활만족도 외에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그동안 농업인의 복지 수준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소득과 연령, 건강, 여가생활, 주거형태 등 물질적 요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지역별로, 유형별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수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행복은 지혜와 지식,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감, 절제력 등 긍정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 미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자신의 강점과 미덕을 발휘하여 행복을 얻을 때 그 사람은 참된 삶을 누리게 된다. 강점과 미덕은 좋은 느낌과 희열감을 자아내는 긍정적 특성이다. 행복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십분 발휘할 때 찾아오며, 개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속적인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면 자신들의 미덕, 대표 강점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의 행복도 향상을 고려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심리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업인 행복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경제적인 요인 외에 심리적 요인에 따른 행복도를 분석함으로써, 농가에게 있어 긍정적정서와 미덕이 잘 발휘되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농업인 복지의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나.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도의 개념 정립을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정서와 미덕, 그리고 강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행복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며, 자신의 대표 강점을 활용하여 주된 활동영역 속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는 삶이라고 정의된다. 류보머스키(캘리포니아대)가 고안한 일반행복도 검사를 제시하고, 6가지의 미덕과 그 속에 내재된 24가지의 강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행복도 실태를 분석하였다. 응답농가와 비응답농가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행복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계측하였다. 아울러 각 요인들간의 관계를 미덕과 긍정적 정서를 이용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농가를 위한 행복도 관련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농촌복지정책은 다시 농림수산물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나누어 예산 배정 내역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시책을 다루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와 관련 추진정책을 기초로 행복도 개선대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으로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연구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기존 자료조사와 농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존 자료는 통계청, 농림수산물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관련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고, 기타 국내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농가 설문조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1,7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각각 807개 농가(응답)와 871개 농가(미응답)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농가별로 사회경제적 요인(물질적요인)과 심리적요인, 그리고 행복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  $\chi^2$  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있어서는 행복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물질적요인과 심리적요인, 그리고 긍정적정서와 미덕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긍정적정서와 미덕의 발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chi^2$  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한 응답자들의 물질적요인, 심리적요인, 물질적·심리적 요인에 따른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정책은 농림수산물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당 사이트 외, 농림통계연보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백서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행복도의 개념 정립

### 가. 행복도의 개념

행복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마음에 차지 않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어 기쁘고 넉넉하고 푸근함 혹은 그러한 상태’(동아 새 국어사전, 2004)를 가리킨다. 이 정의에 의하면 행복을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욕구들이 충족되어 기쁨, 즐거움, 호뭇함 등의 정적인 정서와 만족스러움 등의 인지를 갖게 되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수정·안신호(2005)에 의하면 심리학에서 행복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Wilson(1967)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Wilson은 이전의 논문을 개관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먼저, ‘행복한 사람은 젊고, 건강하며 좋은 교육을 받았고, 돈을 잘 번다. 그리고 외향적이고, 낙천적이며, 걱정이 없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결혼을 했다. 또한 자신감이 있고, 직업에 대한 의욕이 강하고, 적절한 기대 수준을 갖고 있으며, 성과 지능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리스 철학 이후로 2000년 동안 행복에 관한 이론의 진보는 거의 없었고, Wilson의 논문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 인구학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수정·안신호(2005)는 행복이라는 주제 아래,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행복의 유발요소로서 생리적, 친애, 성취욕구를 비롯하여 자존감, 창의성, 삶의 의미 욕구 등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았다.

박영신·김의철(2009)은 한국 성인들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토착심리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져 온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유하고 있는 독특한 심리적인 구인들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가 한국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 왔다. 이어 ‘어떻게 하면 한국 성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복의 심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해답을 찾기 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인 자원과 관련된 변인들이 한국 성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상호적인 역동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인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맥락 속에서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에 가정에서 자녀들도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정서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자녀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즉 자기효능감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동시에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사이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지원과 행복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간접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모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은 한국인의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토착 심리가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성인 개인의 직업적인 성취뿐 아니라, 자녀의 성공을 통한 부모의 가정적인 성취가 한국 성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경로이었다. 즉 자녀의 성공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직접효과가 확인됨으로써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토착심리가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에게 대리적인 성취감을 주어 행복을 주는 것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성취에 몰두하는 현상의 심리적인 근원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희생하였을 때 자녀가 효도를 하는 메커니즘에서, 효도의 방식으로 학업성취 등 다양한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표현의 형태가 가정되었다.

한편, 학력이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학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직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에 대해 간접효과가 있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듯이, 성적이 높다는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학력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직업에서의 성취도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행복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학력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또한 직업적 성취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직업적 성취가 높아지면 더욱 행복하므로,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학력이 행복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구재선(2009)은 횡단적 자료분석에서 행복은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다른 심리적 자원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생활만족과 긍정적, 부정적 정서는 모두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자기존중감이나 낙관주의와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행복이 인구학적 변인이나 물질적 요소들보다 자기존중감이나 낙관주의와 같은 개인 내적인 심리적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정서는 과거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현재나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정서에는 낙관주의, 희망, 신념, 신뢰가 포함된다. 현재에 대한 긍정적정서로는 기쁨, 황홀경, 평온함, 열의, 정열, 즐거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몰입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정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협소하게 축약되지 않은 정도에서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보통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긍정적감정에는 만족, 안도감, 성취감, 자부심, 평정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정서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꼭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도 않다. 과거, 현재, 미래의 긍정적정서가 모두 행복하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과거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껴도, 현재는 못마땅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현재는 즐거우나 고거는 괴롭고 미래는 희망적일 수 있다. 이처럼 저마다 다른 세 가지 행복을 알게 되면 과거에 대한 감정, 미래에 대한 생각, 현재 겪고 있는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긍정심리학은 사람의 강점과 미덕에 대하여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마

틴셀리그만, 2004). 긍정심리학은 개인이 가진 장점과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근원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및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학이다. 여기서 행복은 바로 강점과 미덕을 키움으로써 경험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순적인 것이 아니고 영속적이다.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자신의 미덕과 강점을 발휘하여 얻는 긍정적 감정이야말로 참된 것이며, 자신의 대표 강점을 활용하여 주된 활동영역 속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은 고통을 더 잘 참고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를 제거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림 2-1>은 류보모스키(캘리포니아대)가 고안한 일반행복도 검사이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5점 척도로 되어있다. 본 연구 역시 행복도 점수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이 사용되었고, 조사대상 농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농가의 행복도 점수는 평균 13.8로 나타났다. 참고로 미국 성인의 평균 점수는 13.7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속적인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순간적인 긍정적인 감정이 아무리 많아도 영속적인 행복을 증가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행복도 검사는 이와 같이 순간적인 행복이 아닌 영속적인 행복도 점수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에 삶의 상황과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이 포함된다.

<그림 2-1> 일반 행복도 검사

<p>1. 나는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p> <p>(a)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b) 대체로 불행한 사람이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행복한 사람이다.          (e)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p>	<p>2. 내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p> <p>(a) 훨씬 불행하다.          (b) 대체로 불행하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행복하다.          (e) 굉장히 행복하다.</p>
<p><b>일반 행복도검사</b></p>	
<p>3. 일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상관없이 최대한 현재 삶을 즐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즐기는가?</p> <p>(a) 전혀 즐기지 않는다.          (b) 즐기지 않는 편이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즐기는 편이다.          (e) 아주 많이 즐긴다.</p>	<p>4. 일반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얼마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p> <p>(a) 아주 많이 불행하다.          (b) 불행한 편이다.          (c) 보통이다.          (d) 행복한 편이다.          (e) 아주 많이 행복하다.</p>

## 나. 긍정적정서, 미덕, 강점

긍정적인 정서에는 크게 3가지, 즉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있다. 이 3가지 정서는 따로따로 함양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감사와 용서, 그리고 결정론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배양하려면 저절로 떠오르는 비관적 사고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박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현재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쾌락과 만족으로 나뉘는데, 쾌락은 순간적이며 앞서 경험한 정서에 따라 규정된다. 그리고 만족은 쾌락보다 훨씬 지속되며, 자신의 강점과 미덕을 발휘할 때 얻는 것이다(마틴셀리그만, 2004).

한편, 행복하고 평안한 웰빙(Well-being)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개인의 강점과 미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강점과 미덕을 발휘하여 행복을 얻을 때, 그 사람은 참된 삶을 누리게 된다. 감정은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성격의 모습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이다. 반면에 특질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의 특성이다. 이 특성은 부정적일수도 긍정적일수도 있는데, 강점과 미덕은 좋은 느낌과 희열감을 자아내는 긍정적 특성이다.

마틴셀리그만(2004)에 의하면 6가지 미덕에는 지혜와 지식,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감, 절제력, 영성과 초월성이 있다. 이 6가지 미덕에는 저마다 그 미덕을 함양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정의감을 예로 들자면, 훌륭한 시민정신, 공정성, 성실함과 협동정신, 인간적인 지도력을 실천함으로써 함양할 수 있다. 이런 실천을 강점이라고 하는데, 추상적인 미덕과는 달리 강점은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강점의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강점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이다. 한 번 어디에선가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인간애라는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강점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강점은 대개 좋은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지도력을 잘 발휘하면 대부분 신망을 얻고 승급과 승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강점과 미덕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않더라도, 강점은 그 자체로서 소중하다. 또한 한 사람이 강점을 발휘한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미덕을 베푸는 것을 보면 감동하고 용기를 얻는다.

개인의 강점과 미덕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큰 힘이 된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 개인의 강점이 빛을 발한다. 개인이 가진 아주 특별한 강점을 대표 강점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저마다 3~4가지의 대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강점은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다양한 분야에서 날마다 발휘하는 탁월한 특성이다. 행복한 삶이란 바로 참된 행복과 큰 만족을 얻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대표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6가지의 미덕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강점이 속하며, 각각의 미덕은 이들을 통해서 함양된다.

먼저 지혜와 지식은 ①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②학구열, ③판단력, 비판적 사고, 열린 마



음, ④창의성, 독창성, 실천성지능, 세상을 보는 안목, ⑤사회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정서 지능, ⑤예견력 등을 통해서 함양된다.

용기는 ①호연지기와 용감함, ②끈기, 성실, 근면 ③지조, 진실, 정직 등을 통해서 함양된다. 사랑과 인간애는 ①친절과 아량, ②사랑할 능력, 사랑받을 능력 을 통해 함양된다.

정의감은 ①시민정신, 의무감, 협동정신, 충성심, ②공정심, 평등정신 ③지도력 을 통해서 함양된다.

절제력은 ①자기통제력, ②사려, 신중함, 조심성, ③겸손과 겸양 등을 통해서 함양된다.

영성과 초월성은 ①감상력, ②감사, ③희망, 낙관주의, 미래지향성, ④영성, 목적의식, 신념, 신앙심, ⑤용서와 연민 ⑥명랑함과 유머감각 ⑦신명, 열정, 열광 등을 통해서 함양된다(<표 2-1> 참조).

<표 2-1> 미덕과 강점

미덕	강점(24가지)
지혜와지식	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학구열
	판단력, 비판적 사고, 열린 마음
	창의성, 독창성, 실천성 지능, 세상을 보는 안목
	사회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정서지능
용기	예견력
	호연지기와 용감함
	끈기, 성실, 근면
사랑과 인간애	지조, 진실, 정직
	친절과 아량
정의감	사랑할 능력, 사랑받을 능력
	시민정신, 의무감, 협동정신, 충성심
	공정심, 평등정신
절제력	지도력
	자기통제력
	사려, 신중함, 조심성
영성과 초월성	겸손과 겸양
	감상력
	감사
	희망, 낙관주의, 미래지향성
	영성, 목적의식, 신념, 신앙심
	용서와 연민
	명랑함과 유머감각
신명, 열정, 열광	

### 3. 농가의 행복도 실태

#### 가. 실태조사 개요

##### 1)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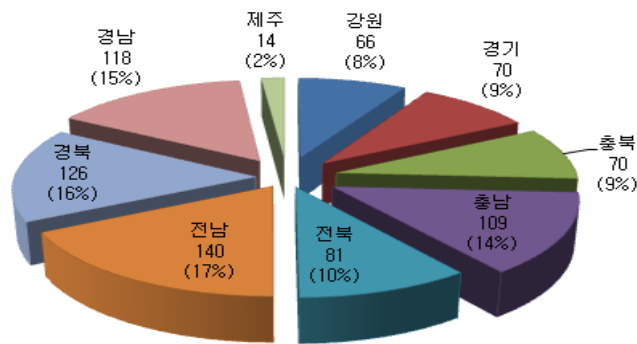
본 연구는 농촌 마을의 행복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 9월~10월 사이에 전국 농촌 지역 1,700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의 협조를 얻어 9개도와 대전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중 농촌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할 만한 149개 시·군을 선정하여 우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1,700부를 배포하여 851부가 회수되었고, 그 가운데 80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 지역 및 해당 농가수는 다음 <그림 3-1>, <표 3-1>과 같다.

광주·전남 지역이 140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농가 가운데 17%를 차지하여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126(16%), 부산·경남 지역 118(15%), 충남 지역 109(14%), 전북 지역 81(10%), 경기 지역 70(9%), 충북지역 70(9%) 순이다.

<그림 3-1> 조사대상지역 농가 수



<표 3-1> 조사대상지역과 농가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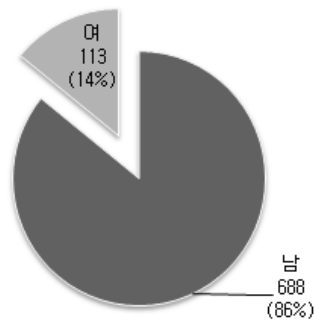
구분	강원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계
응답수	66 (8.3)	70 (8.8)	70 (8.8)	109 (13.7)	81 (10.2)	140 (17.6)	126 (15.9)	118 (14.9)	14 (1.8)	807

## 2) 조사대상 농가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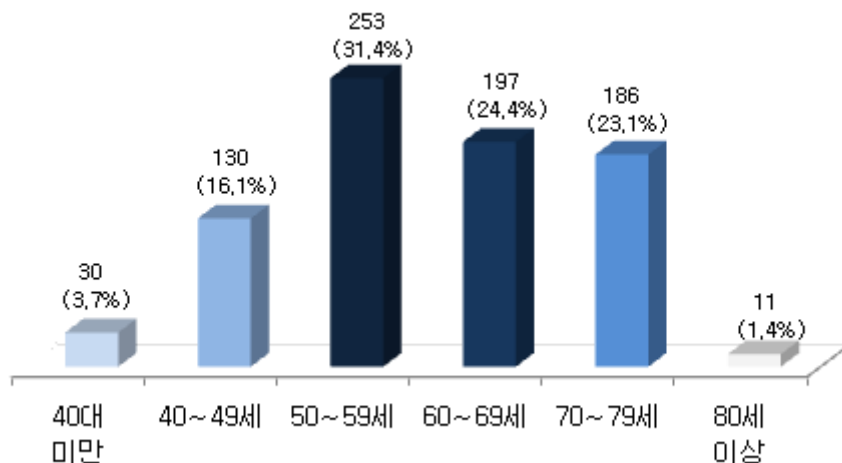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 농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688명(86%), 여성이 113명(14%)으로 남성이 훨씬 많이 표집되었다. 연령은 '50~59세' 253명(31.4%), '60~69세' 197명(24.4%), '70~79세' 186명(23.1%), '40~49세' 130명(16.1%), '40대 미만' 30명(3.7%) 순으로 50대 연령층에서 비교적 많이 표집되었고, 40대 미만의 젊은 농업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평균 연령은 5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그림 3-3> 참조).

<그림 3-2>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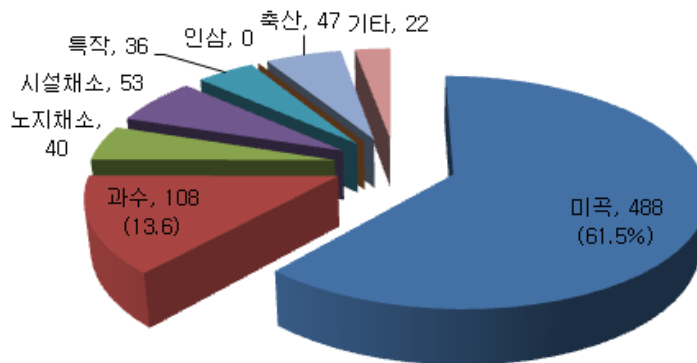
<그림 3-3>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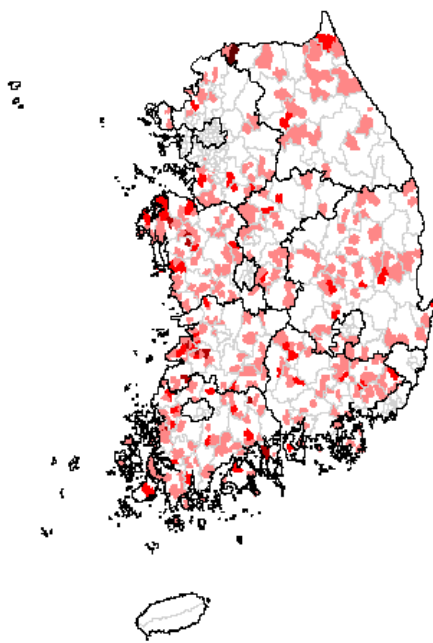
작목별로는 벼 재배농가가 488명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과수 108명(13.6%), 시설채소 53명(6.7%), 축산 47명(5.9%), 노지채소 40명(5.0%), 특작 36명(4.5%), 기타 22명(2.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4> 참조).

벼 재배농가는 여타 작목에 비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과수 재배농가의 경우는 주로 경북지역과 충북지역에 밀집하여 있으며, 노지채소 재배농가는 강원도 지역에 주로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채소 재배농가는 충청지역과 경남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특용작물 재배농가는 충북지역과 경북지역에, 축산 농가는 충북 보은지역과 경남 거창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기타 농가는 주로 강원 정선지역과 전남 장흥지역 등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화훼, 장류, 산야초, 육림, 고구마, 콩,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그림 3-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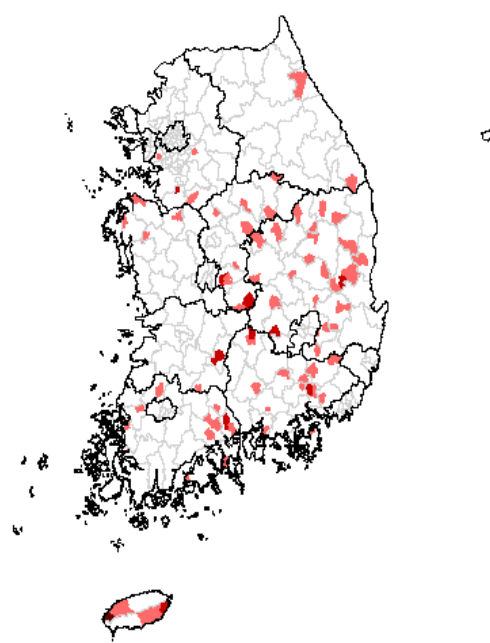
<그림 3-4> 작목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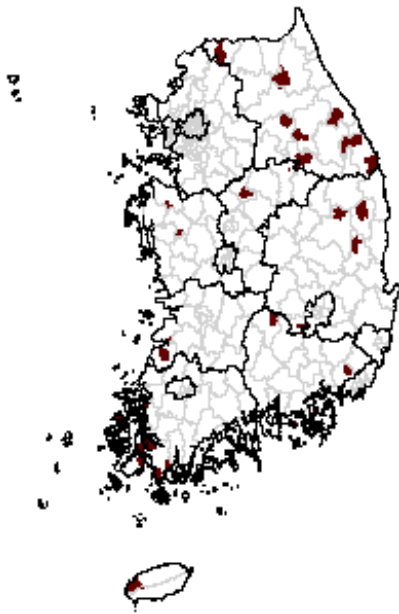
<그림 3-5> 벼 재배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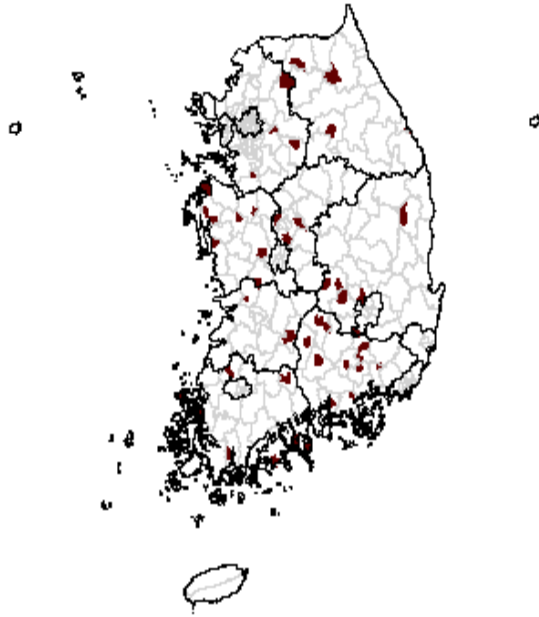
<그림 3-6> 과수 재배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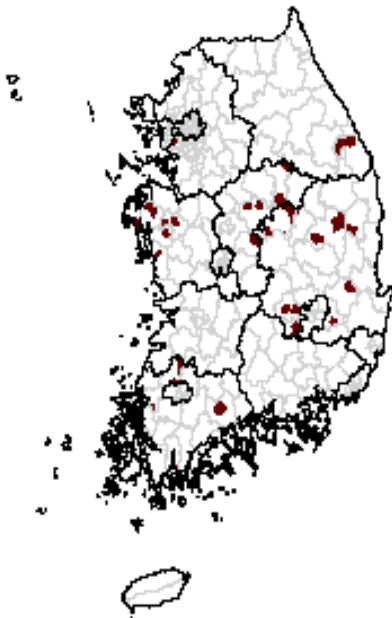
<그림 3-7> 노지채소 재배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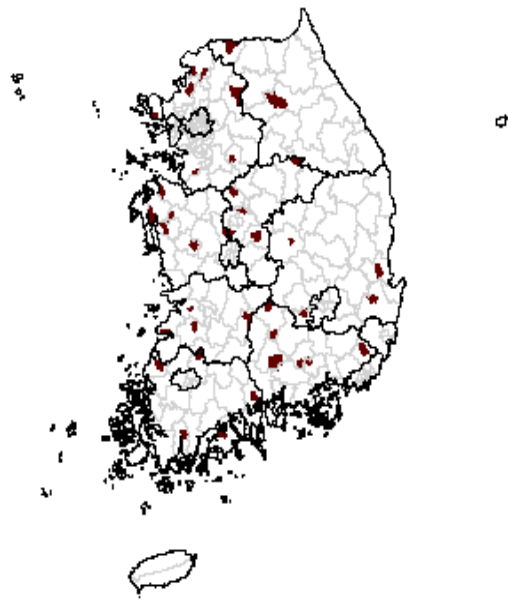
<그림 3-8> 시설채소 재배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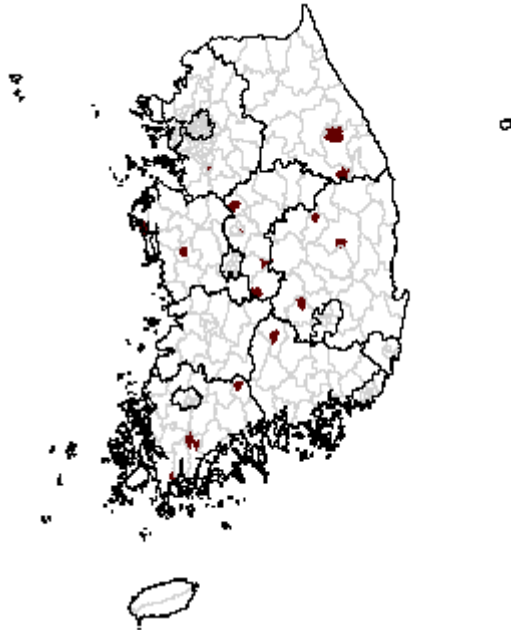
<그림 3-9> 특용작물 재배농가



<그림 3-10> 축산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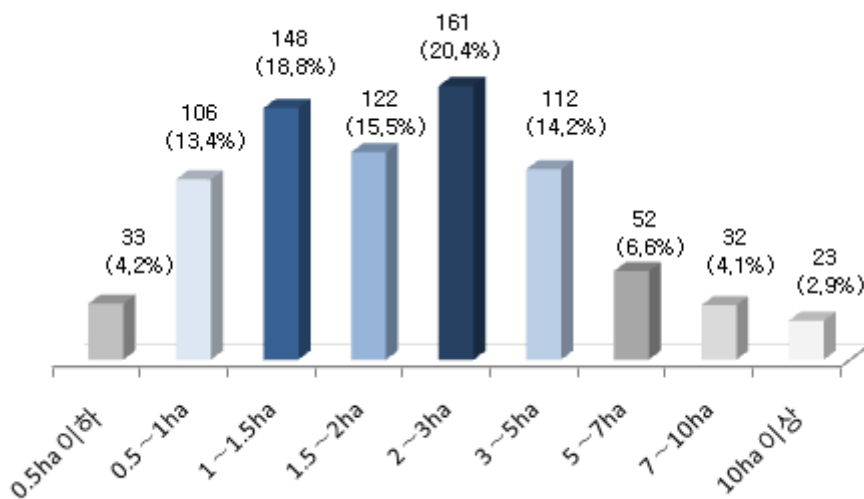


<그림 3-11> 기타 농가



경지면적별로는 '2~3ha'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가 161명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1~1.5ha'로 148명(18.8%), '1.5~2ha' 122명(15.5%), '3~5ha' 112명(14.2%), '0.5~1ha' 106명(13.4%), '5~7ha' 52명(6.6%), '0.5ha이하' 33명(4.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2.7ha로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평균 농지 소유면적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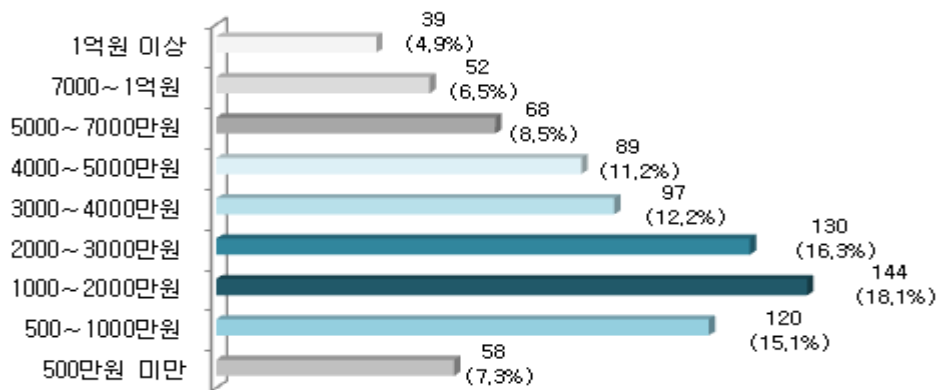
<그림 3-12> 경지면적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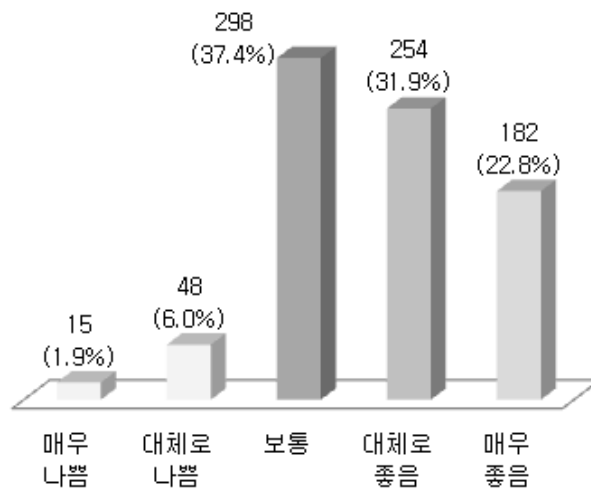
가계소득별 분포를 보면 '1000~2000 만원'이 144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2000~3000 만원' 130명(16.3%), '500~1000 만원' 120명(15.1%), '3000~4000 만원' 97명(12.2%), '4000~5000 만원' 89명(11.2%), '5000~7000 만원' 68명(8.5%), '500 만원 미만' 58명(7.3%), '1억원 이상' 39명(4.9%) 순으로 나타나, 3000 만원 미만의 가계소득이 전체 조사대상 농가의 56.8%임을 알 수 있다(<그림 3-13> 참조).

건강상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질문항목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몇 개입니까?', '화장실을 가거나 길을 걸을 때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물건을 들 때 허리나 다리 등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각각의 5점 척도를 합하여 100점으로 비율화 시켰다. 그 결과 건강상태가 '보통이다'라고 판단된 농가가 298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하였고, '대체로 좋다' 254명(31.9%), '매우 좋다' 182명(22.8%)로 대체로 양호하다고 추정되는 비율이 90%를 넘었다(<그림 3-14> 참조). 한편 위 질문('건강상태')은 연구자가 고안한 측정항목으로 조사대상 농가의 주관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그림 3-13> 가계소득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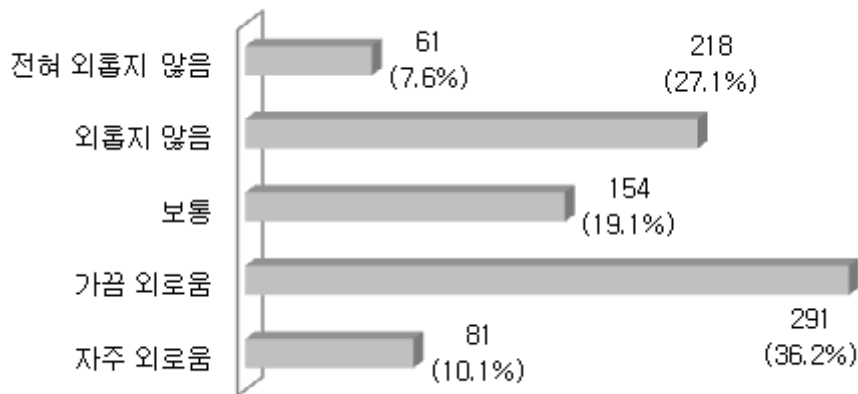
<그림 3-14> 건강상태별 분포



‘요즘 생활에서 외롭다고 느끼시는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끔 외롭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291명(36.2%)으로 가장 많아 ‘자주 외롭다’ 81명(10.1%)을 포함해 ‘외롭다’는 의견이 전체의 46.3%를 차지하였다(<그림 3-15> 참조).

외로움 정도를 가계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500만원 미만’에서는 ‘가끔 외롭다’와 ‘자주 외롭다’를 합하여 ‘외롭다’는 의견이 55.1%이고, ‘500-1000만원’ 53.3%, ‘1000-2000만원’ 49%, 2000-3000만원 47.7%, ‘3000-4000만원’ 41.3%, ‘1억원 이상’ 33.4% 순으로 나타나 소득별로 외로움의 차이가 있었다(<표 3-2> 참조).

<그림 3-15> 주관적 외로움 정도



<표 3-2> 가계소득별 외로움 정도

외로움 정도	가계소득								
	500 미만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7000	7000 -1억원	1억원 이상
전혀 외롭지 않음	7* 12.1**	7 5.8	4 2.8	10 7.7	7 7.2	6 6.8	6 8.8	4 7.7	9 23.1
외롭지 않음	11 19.0	21 17.5	31 21.7	34 26.2	28 28.9	28 31.8	24 35.3	24 46.2	15 38.5
보통	8 13.8	28 23.3	38 26.6	24 18.5	22 22.7	14 15.9	10 14.7	7 13.5	2 5.1
가끔 외로움	18 31.0	49 40.8	54 37.8	52 40.0	32 33.0	30 34.1	24 35.3	14 26.9	12 30.8
자주 외로움	14 24.1	15 12.5	16 11.2	10 7.7	8 8.3	10 11.4	4 5.9	3 5.8	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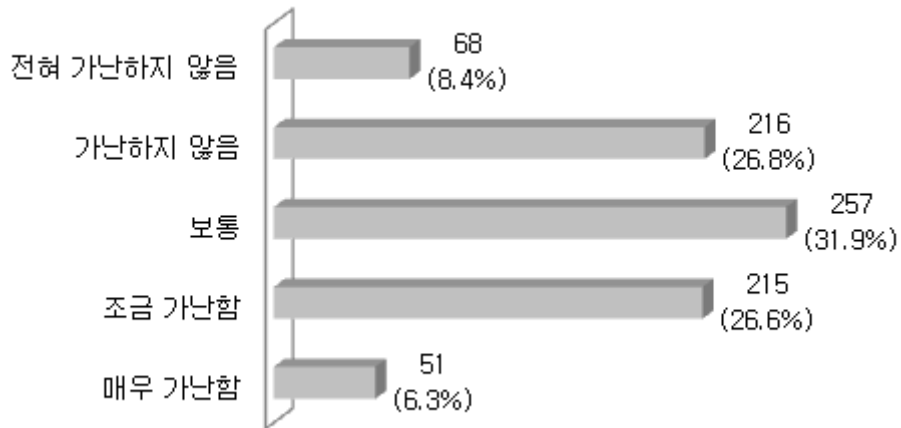
주: \* 빈도, \*\* 열%, p-value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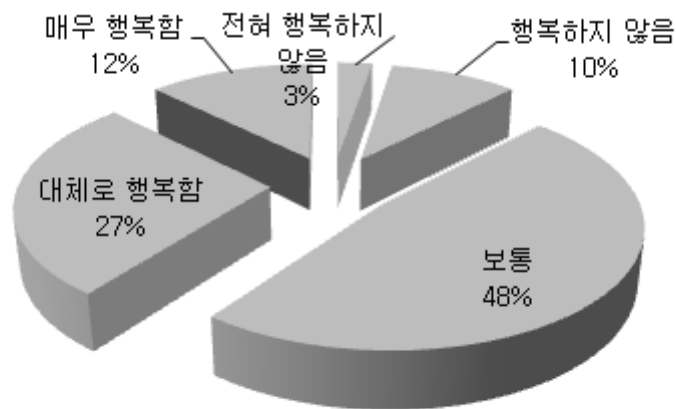
‘비슷한 또래의 분들과 비교하여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57명(31.9%)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가난하지 않다’ 216명(26.8%), ‘전혀 가난하지 않다’ 68명(8.4%)으로 ‘가난하지 않다’고 응답한 농가가 전체의 67.1%에 달하였다(<그림 3-16> 참조).

한편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48%, ‘대체로 행복하다’ 27%, ‘매우 행복하다’ 12% 순으로 ‘자식들이 무난히 살고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87%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7> 참조).

<그림 3-16> 주관적 경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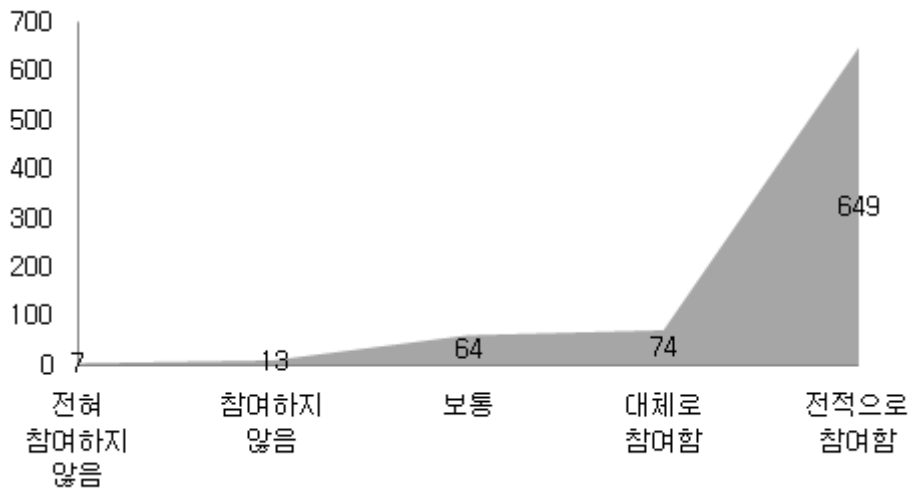
<그림 3-17> 자녀들의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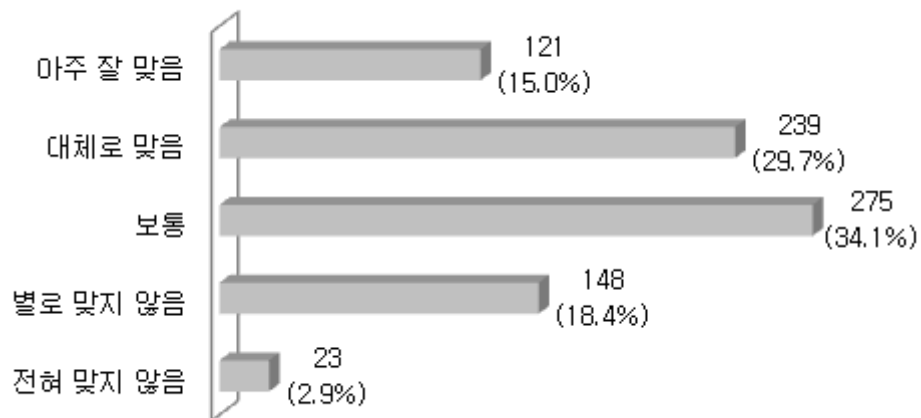
농사일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649명(80.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이 ‘대체로 참여한다’ 74명(9.2%), ‘보통이다’ 64명(7.9%)순으로 조사대상자의 거의 모든 농가가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8> 참조).

‘현재 농사일이 자신의 적성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275명(34.1%), ‘대체로 맞는다’ 239명(29.7%), ‘별로 맞지 않는다’ 148명(18.4%) 순으로 ‘농사일 적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농가가 전체의 48.1%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9> 참조).

<그림 3-18> 농사일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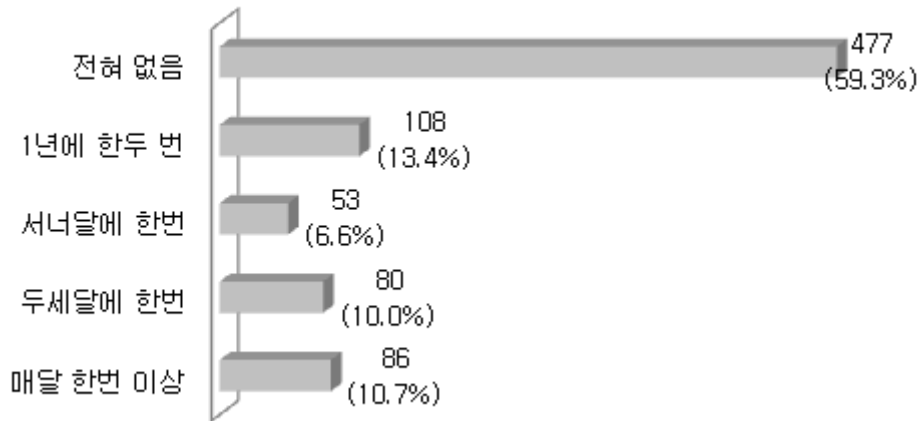
<그림 3-19> 농사일 적성도



‘최근 1년간 돈이 없어서 균형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 섭취)를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477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1년에 한두 번’ 108명(13.4%), ‘매달 한번 이상’ 86명(10.7%), ‘두세달에 한번’ 80명(10.0%), ‘서너달에 한번’ 53명(6.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20> 참조).

이를 다시 배우자 유무, 주거형태별로 살펴본 결과 배우자 유무에 따른 균형잡힌 식생활 정도의 차이는 없었지만, 자녀와 함께 생활한 농가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균형잡힌 식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항목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빈도가 높았다(<표 3-22> 참조).

<그림 3-20> 균형잡힌 식생활 정도



<표 3-3> 균형잡힌 식생활 정도

균형잡힌 식생활 정도	배우자 유무		주거 형태	
	있음	없음	자녀와 함께 생활	따로 떨어져 생활
매달 한번 이상	79* 10.4**	6 15.4	37 14.4	49 9.2
두세달에 한번	74 9.7	6 15.4	20 7.8	60 11.3
서너달에 한번	50 6.6	3 7.7	13 5.1	37 6.9
1년에 한두 번	102 13.4	6 15.4	29 11.3	78 14.6
전혀 없음	457 59.9	18 46.2	158 61.5	309 58.0
총합	762 95.1	39 4.9	257 32.5	533 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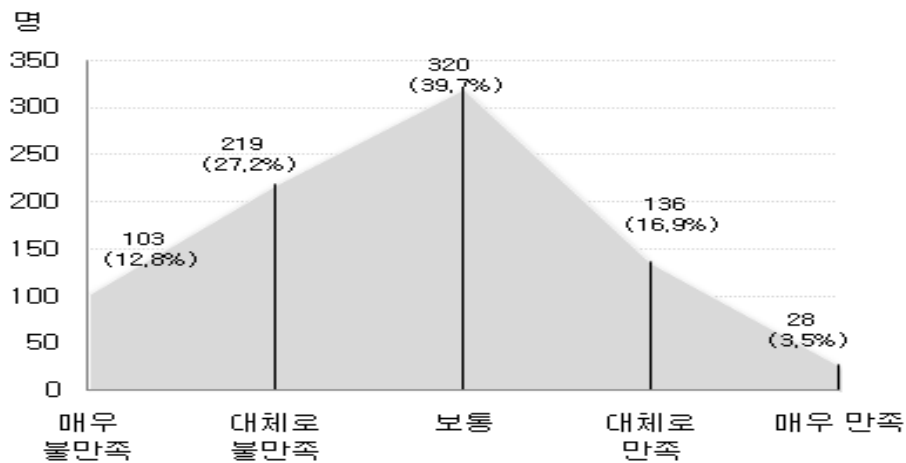
주: \* 빈도, \*\* 열%, p-value 0.4852, 0.0575

의료수준은 주관적, 객관적인 다음 2가지 질문 항목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의료환경(병원, 보건소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병원이나 보건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등으로 나누어 견해를 들어보았다. 먼저 주관적으로 느끼는 해당지역의 의료수준에 있어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320명(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219명(27.2%), ‘매우 불만족스럽다’ 103명(12.6%)으로 의료수준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농가가 전체의 40%에 달하였다(<그림 3-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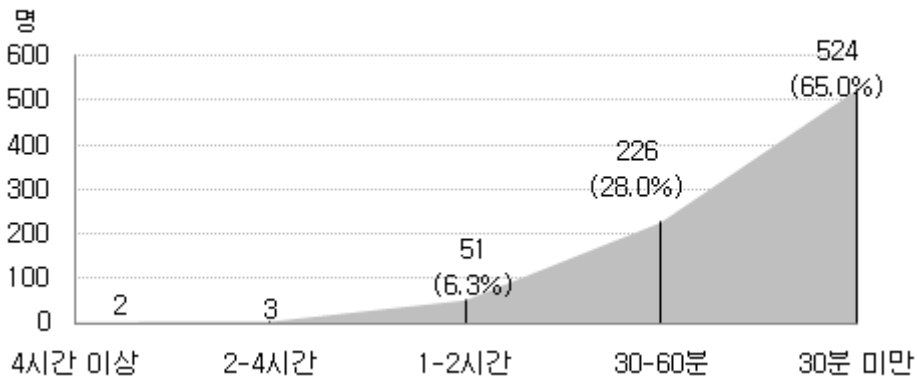
다음으로 객관적 의료수준에 있어서는 ‘해당지역 병원이나 보건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65%, ‘30분-1시간’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28%로써 전체 93%의 농가가 1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22> 참조).

이렇게 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가 낮은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비구축이나 서비스, 치료비용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 의료수준별 분포(주관적)



<그림 3-22> 의료수준별 분포(객관적)



한편 지역별로 농가들의 의료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제주지역과 충북지역이 각각 50.0% 48.5%로 ‘불만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반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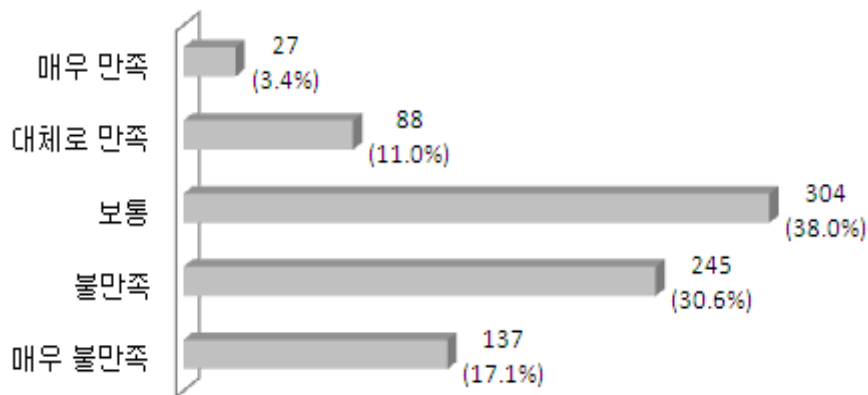
<표 3-4> 지역별 주관적 의료수준

의료 수준	지역									총합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매우 불만족	10	5	15	6	9	17	24	14	1	101
	15.2	7.1	21.4	5.5	11.1	12.1	19.1	12.0	7.1	
대체로 불만족	21	19	19	34	14	36	36	31	6	216
	31.8	27.1	27.1	31.2	17.3	25.7	28.6	26.5	42.9	
보통	23	34	20	48	33	62	43	47	4	314
	34.9	48.6	28.6	44.0	40.7	44.3	34.1	40.2	28.6	
대체로 만족	7	11	13	17	21	24	18	20	3	134
	10.6	15.7	18.6	15.6	25.9	17.1	14.3	17.1	21.4	
매우 만족	5	1	3	4	4	1	5	5	0	28
	7.6	1.4	4.3	3.7	4.9	0.7	4.0	4.3	0	
총합	66	70	70	109	81	140	126	117	14	793
	8.3	8.8	8.8	13.8	10.2	17.7	15.9	14.8	1.8	100

주: \* 빈도, \*\* 열%, p-value 0.1059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교육환경(학교, 학원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04명(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만이다’ 245(30.6%), ‘매우 불만이다’ 137명(17.1%) 순으로 교육환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의견이 48%에 달하였다(<그림 3-23> 참조).

<그림 3-23> 주관적 교육환경 수준



지역별로 나타난 교육환경 만족도에 있어서는 경북지역 농가의 54.4%가 ‘불만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내 전체 지역 가운데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반면 제주지역과 경남지역의 경우 농가의 각각 21.4%, 20.5%가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표 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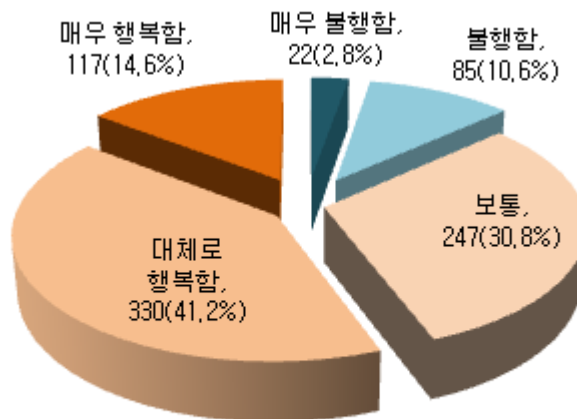
<표 3-5> 지역별 주관적 교육환경 수준

교육 수준	지역									총합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매우	11	12	11	13	13	26	34	13	2	135
불만족	16.7	17.4	15.7	12.0	16.1	18.7	27.2	11.1	14.3	
대체로	19	20	28	34	25	40	34	42	3	245
불만족	28.8	29.0	40.0	31.5	30.9	28.8	27.2	35.9	21.4	
보통	24	25	23	48	34	62	36	38	6	296
대체로	36.4	36.2	32.9	44.4	42.0	44.6	28.8	32.5	42.9	
매우	9	12	6	7	6	10	16	18	3	87
만족	13.6	17.4	8.6	6.5	7.4	7.2	12.8	15.4	21.4	
매우	3	0	2	6	3	1	5	6	0	26
만족	4.6	0	2.9	5.6	3.7	0.7	4	5.1	0	
총합	66	69	70	108	81	139	125	117	14	789
	8.4	8.8	8.9	13.7	10.3	17.6	15.84	14.8	1.8	100

주: \* 빈도, \*\* 열%, p-value 0.0694

농가의 행복도는 류보머스키(리버사이드대)가 고안한 일반 행복도 검사를 통해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330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247명(30.8%), ‘매우 행복하다’ 117명(14.6%)으로 현재의 삶이 불행하지 않다고 응답한 농가가 전체의 86.6%를 차지하였다(<그림 3-24> 참조).

<그림 3-24> 행복도별 분포



<표 3-6> 조사대상농가의 일반적 특성

구분		계	구		계
성별	남 여	688(85.9) 113(14.1)	결혼여부	기혼 미혼	786(98.1) 15(1.9)
연령	40대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30(3.7) 130(16.1) 253(31.4) 197(24.4) 186(23.1) 11(1.4)	배우자 유무	있음 없음	764(95.0) 40(5.0)
			거주형태	자녀와 함께 생활 따로 떨어져 생활	258(32.5) 535(67.5)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75(9.4) 236(29.5) 373(46.7) 115(14.4)	가계소득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 3000~4000만원 4000~5000만원 5000~7000만원 7000~1억원 1억원 이상	58(7.3) 120(15.1) 144(18.1) 130(16.3) 97(12.2) 89(11.2) 68(8.5) 52(6.5) 39(4.9)
업종	농업 임업 수산업	796(98.9) 8(1.0) 1(0.1)			
현업 종사 경력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이상	22(1.5) 28(3.5) 75(9.5) 177(22.3) 225(28.3) 172(21.7) 105(13.2)	지역	강원 인천·경기 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울산·경북 부산·경남 제주	66(8.3) 70(8.8) 70(8.8) 109(13.7) 81(10.2) 140(17.6) 126(15.9) 118(14.9) 14(1.8)
주작목	미곡 과수 노지채소 시설채소 특작 인삼 축산 기타	488(61.5) 108(13.6) 40(5.0) 53(6.7) 36(4.5) 0(0.0) 47(5.9) 22(2.8)	건강상태	매우 나쁨 대체로 나쁨 보통 대체로 좋음 매우 좋음	15(1.9) 48(6.0) 298(37.4) 254(31.9) 182(22.8)
경지면적	0.5ha 이하 0.5~1ha 1~1.5ha 1.5~2ha 2~3ha 3~5ha 5~7ha 7~10ha 10ha 이상	33(4.2) 106(13.4) 148(18.8) 122(15.5) 161(20.4) 112(14.2) 52(6.6) 32(4.1) 23(2.9)	여가활동	매우 소극적 대체로 소극적 보통 대체로 적극적 매우 적극적	12(1.5) 130(16.4) 130(16.4) 311(39.2) 210(26.5)
			행복도 수준	매우 불행함 불행함 보통 대체로 행복함 매우 행복함	22(2.8) 85(10.6) 247(30.8) 330(41.2) 117(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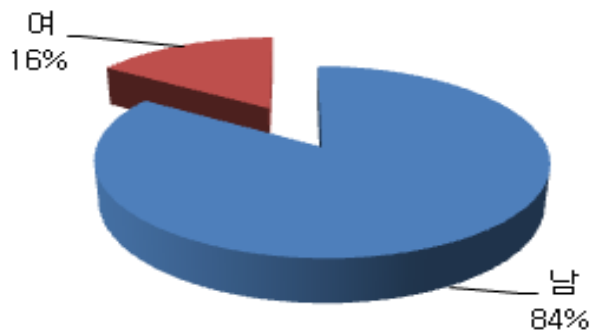
주: 결측치에 따라 사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3) 미응답 농가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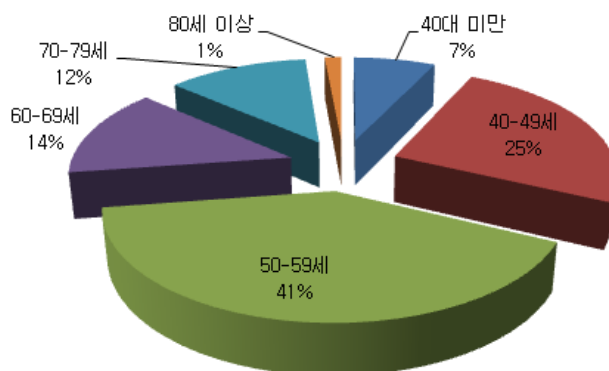
한편 분석에 사용된 807 농가 외에 미응답 농가로 분류된 871명(불성실 응답농가 22명 포함)에 대해서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영농경력별, 경지면적별, 지역별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남성 731명(84%), 여성139명(16.0%)으로 응답 농가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그림 3-25> 참조). 연령별로는 ‘50~59세’ 281명(40.6%), ‘40~49세’ 173명(25.0%), ‘60~69세’ 95명(13.7%), ‘70~79세’ 84명(12.1%), “40대 미만’ 49명(7.0%) 순으로 응답 농가와 유사하게 50대 연령층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60세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미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6>, <그림 3-27> 참조).

<그림 3-25>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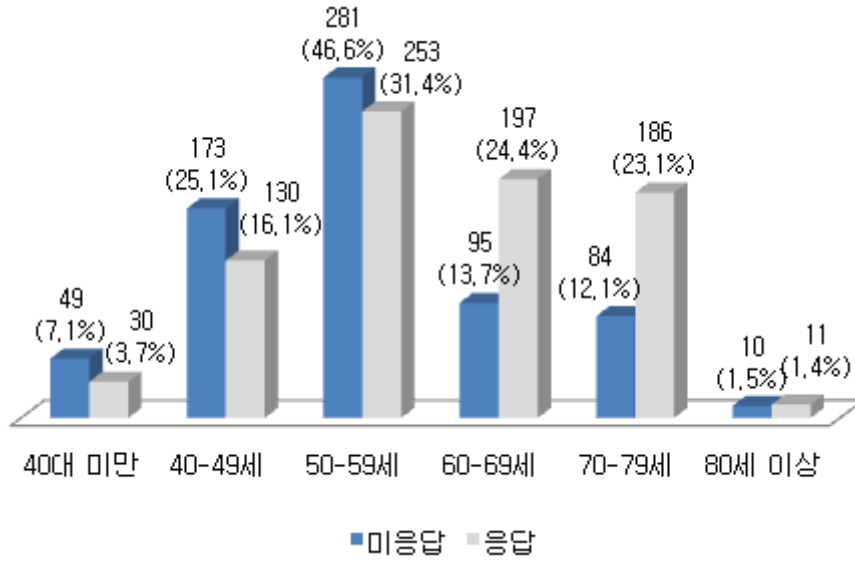


<그림 3-26>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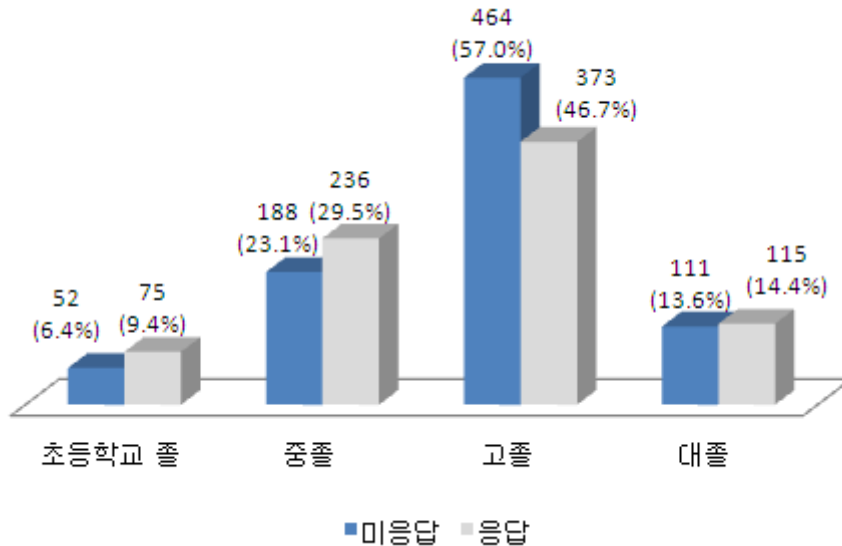


<그림 3-27> 연령별 분포 비교(미응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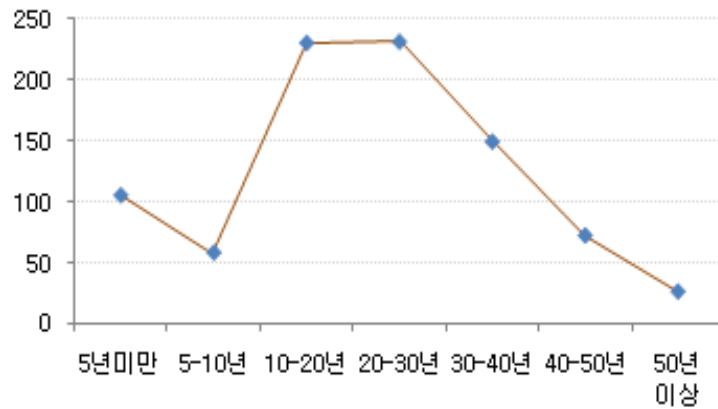
미응답 농가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의 농가가 464명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중학교 졸업’ 186명(23.1%), ‘대학교 졸업 이상’ 111명(13.6%),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명(6.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농가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졸업’의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학교 졸업’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농가는 적었다(<그림 3-28> 참조).

<그림 3-28> 학력별 분포 비교(미응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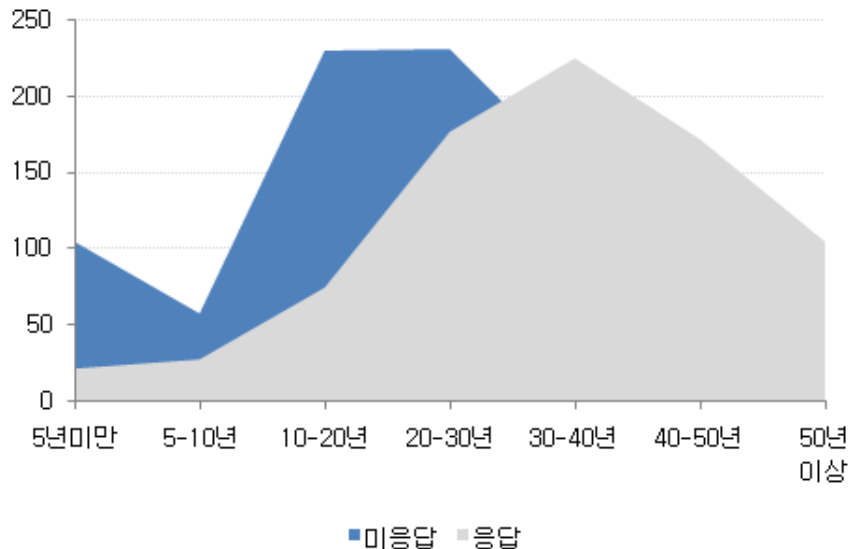


영농경력별로는 ‘20~30년’ 231명(26.5%), ‘10~20년’ 230명(26.4%), ‘30~40년’ 149명(17.1%), ‘5년 미만’ 105명(12.1%), ‘40~50년’ 72명(8.3%), ‘50년 이상’ 26(3.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농가의 영농경력 가운데 ‘30~50년’이 전체의 50.0%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응답 농가의 경우에는 ‘10~30년’이 전체의 52.9%를 차지하고 있어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일수록 미응답 비율이 높고, 영농경력이 긴 농가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9>, <그림 3-30> 참조).

<그림 3-29> 영농경력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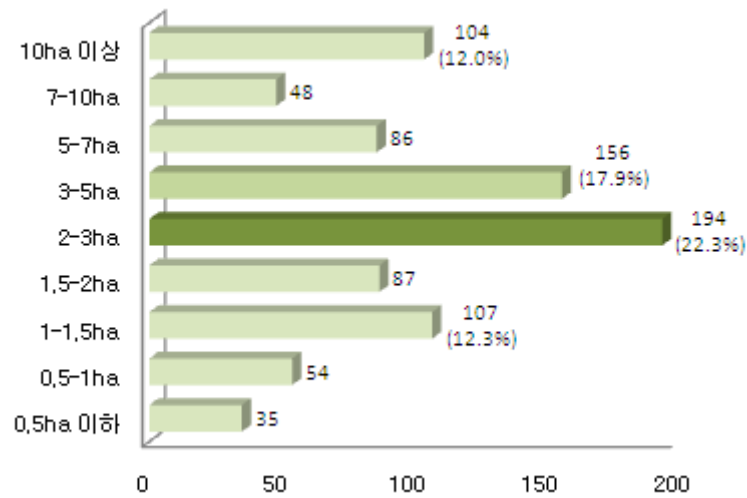
<그림 3-30> 영농경력별 분포 비교(미응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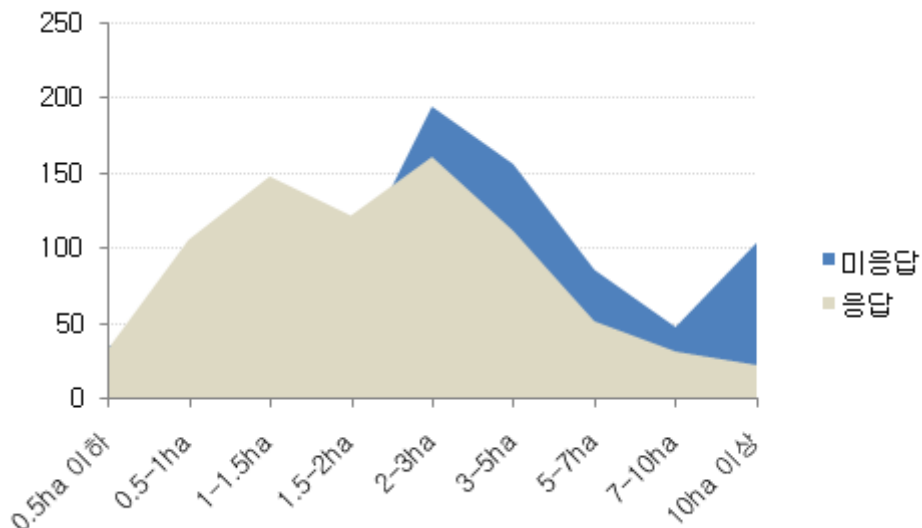
경지면적에 있어서는 '2~3ha' 194명(22.3%), '3~5ha' 156명(17.9%), '1~1.5ha' 107명(12.3%), '10ha 이상' 104명(12.0%), '1.5~2ha' 87명(10.0%), '5~7ha' 85명(9.9%), '0.5~1ha' 54명(6.2%), '7~10ha' 48명(5.5%), '0.5ha 이하' 35명(4.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31> 참조).

응답농가와 비교하여 10ha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일수록 미응답 비율이 높았고, 1.5ha 미만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2> 참조).

<그림 3-31> 경지면적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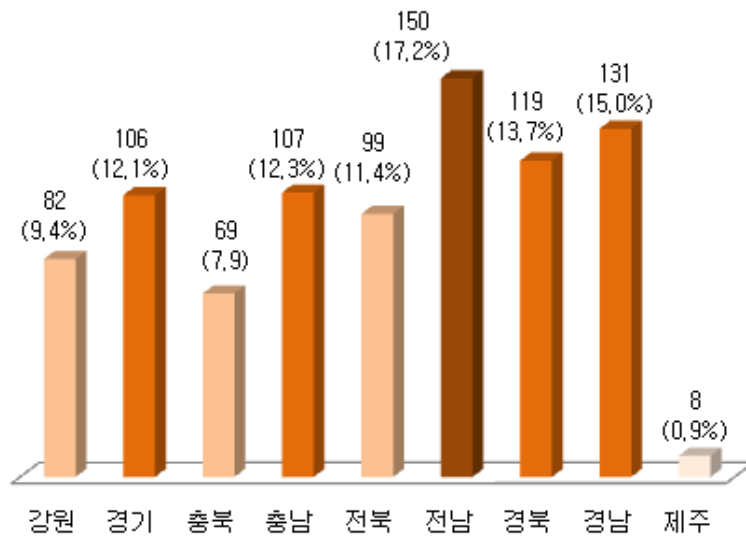
<그림 3-32> 경지면적별 분포 비교(미응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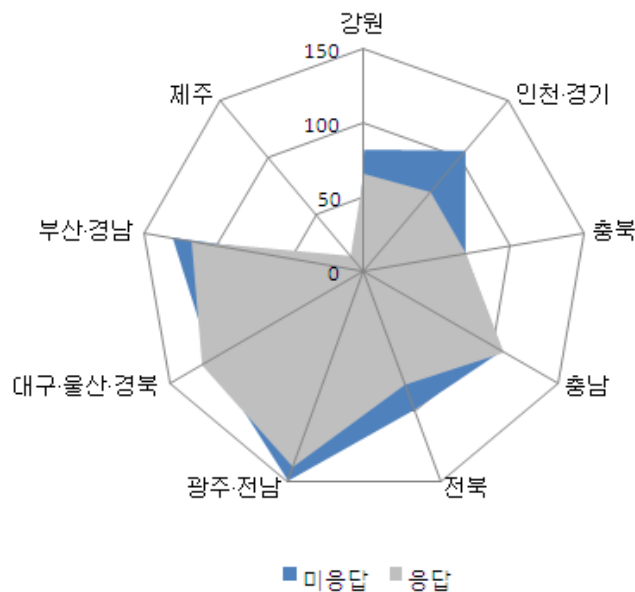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남 150명(17.2%), 경남 131명(15.1%), 경북 119명(13.7%), 충남 107명(12.3%), 경기 106명(12.2%), 전북 99명(11.4%), 강원 82명(9.4%), 제주 8명(0.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33> 참조).

응답농가와 비교하여 경기지역과 전북 지역의 비율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3-34> 참조).

<그림 3-33> 지역별 분포



<그림 3-34> 지역별 분포(미응답, 응답)



<표 3-7> 미응답 농가의 일반적 특성

구분		계
성별	남	731(84.0)
	여	139(16.0)
연령	40대 미만	49(7.0)
	40-49세	173(25.0)
	50-59세	281(40.6)
	60-69세	95(13.7)
	70-79세	84(12.1)
	80세 이상	10(1.5)
학력	초등학교 졸	52(6.4)
	중졸	188(23.1)
	고졸	464(57.0)
	대졸	111(13.6)
영농경력	5년미만	105(12.1)
	5-10년	58(6.7)
	10-20년	230(26.4)
	20-30년	231(26.5)
	30-40년	149(17.1)
	40-50년	72(8.3)
	50년 이상	26(3.0)
경지면적	0.5ha 이하	35(4.0)
	0.5-1ha	54(6.2)
	1-1.5ha	107(12.3)
	1.5-2ha	87(10.0)
	2-3ha	194(22.3)
	3-5ha	156(17.9)
	5-7ha	86(9.9)
	7-10ha	48(5.5)
	10ha 이상	104(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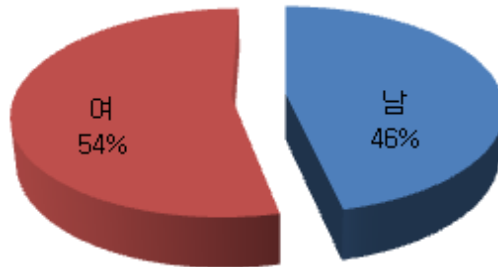
## 나. 행복도 실태

### 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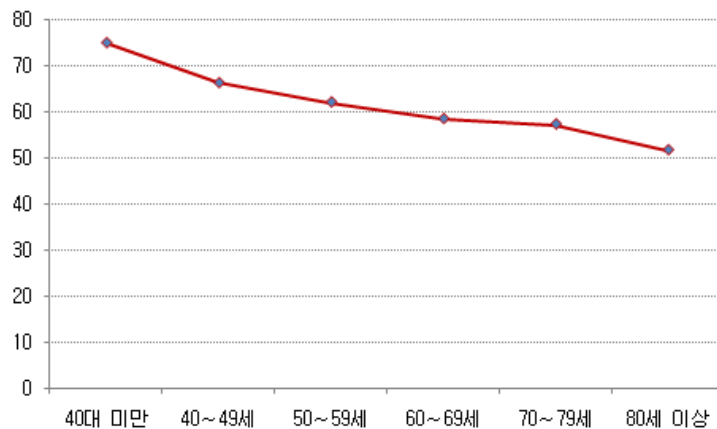
조사대상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행복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복도 점수는 류보머스키(리버사이드대)가 고안한 일반 행복도 검사<sup>1)</sup>를 이용하였고, 성별, 연령별, 학력별, 현업 종사경력별, 결혼여부, 배우자 유무, 거주 형태별, 가계소득별, 경지면적별, 지역별로 행복도 점수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먼저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69.2, 남성이 59.8로 남성과 여성의 행복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의 농가일수록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대 미만’ 75.0, ‘40~49세’ 66.3 ‘50~59세’ 62.1, ‘60~69세’ 58.5, ‘70~79세’ 57.3, ‘80세 이상’ 51.7 순이다(<그림 3-35>, <그림 3-36> 참조).

<그림 3-35> 성별 행복도 수준



<그림 3-36> 연령별 행복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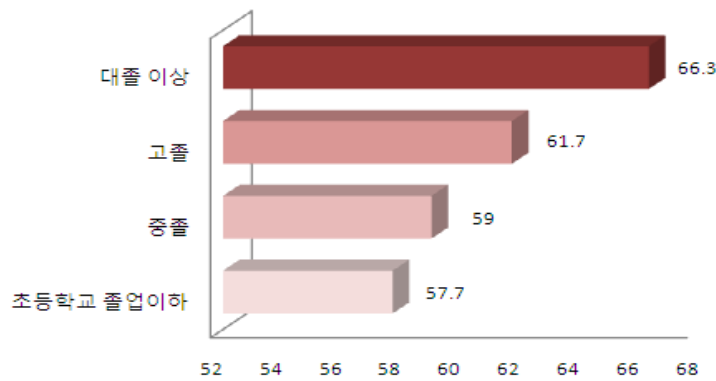


1) 일반 행복도 검사는 4가지 질문항목, 각 7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4가지 질문항목, 각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100점으로 비율 척도화시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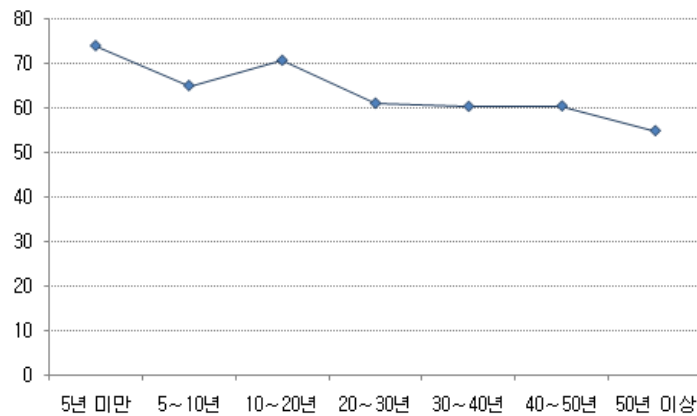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66.3, 고졸 61.7, 중졸 59.0, 초등학교 졸업 이하 57.7로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7> 참조).

영농경력에 있어서는 '5년 미만' 74.0, '10~20년' 70.7, '5~10년' 65.0, '20~30년' 61.0, '30~40년' 60.3, '40~50년' 60.4, '50년 이상' 54.8로 대체로 영농경력이 길수록 행복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8> 참조).

<그림 3-37> 학력별 행복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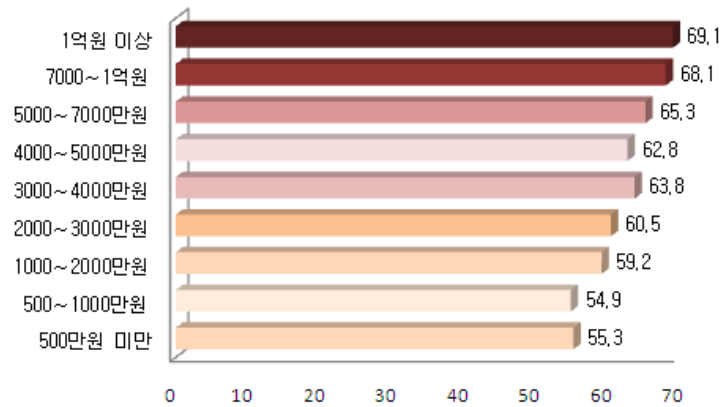
<그림 3-38> 현업 종사경력별 행복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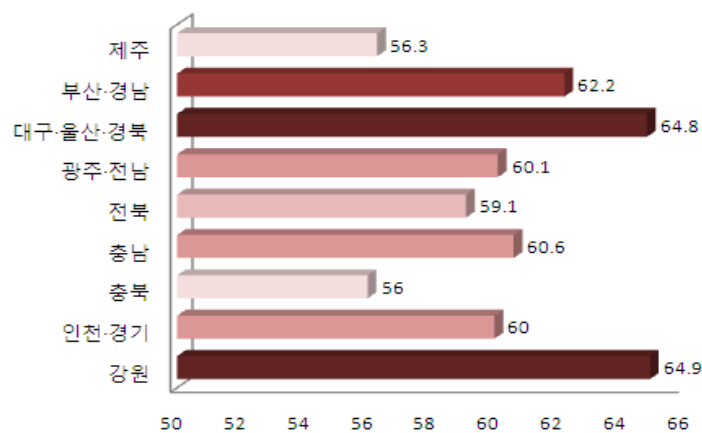
가계소득별 행복도 수준을 보면 ‘1 억원 이상’ 69.1, ‘7000~1 억원’ 68.1, ‘5000~7000 만원’ 65.3, ‘4000~5000 만원’ 62.8, ‘3000~4000 만원’ 63.8, ‘2000~3000 만원’ 60.5, 1000~2000 만원’ 59.2, ‘500~1000 만원’ 54.9, ‘500 만원 미만’ 55.3으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9> 참조).

지역별로는 강원지역 64.9, 경북지역 64.8, 경남지역 62.2, 충남 60.6, 전남 60.1, 경기 60, 전북 59.1, 제주 56.3, 충북 56으로, 행복도에 있어서 지역 변인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수준 10%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강원지역과 경북지역의 농가가 행복도 점수에 있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0> 참조).

<그림 3-39> 가계소득별 행복도 수준



<그림 3-40> 지역별 행복도 수준





한편 지역별로 사회경제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과 경지면적, 외로움, 주관적 경제적 수준, 농업인 정책 만족도, 농사일 참여도, 농사 적성도, 여가생활 등에서 지역 변인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강원 지역이 가장 낮고, 충남, 전북, 경남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사경력(년)은 평균 약 32년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없으며, 경지면적에 있어서는 경남과 제주지역이 가장 작고, 전북지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정도는 강원, 경남, 경북지역이 낮고, 전남, 제주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은 전북, 전남, 제주지역에서 낮게, 강원, 경남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 정책 만족도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가장 낮고, 농사일 참여도는 전북, 제주지역이 낮고, 강원, 경남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표 3-8> 지역별 물질적·심리적 특성

구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연령	54.6*	58.3	59.9	61.7	60.1	59.9	58.7	60.0	59.6	2.31**
	10.5**	11.6	10.6	10.5	13.2	11.0	11.9	11.6	8.9	
종사경력(년)	29.9	33.7	32.7	34.8	34.8	32.8	32.4	33.4	31.6	0.98
	11.5	14.1	12.7	12.9	16.0	13.2	12.9	12.2	11.3	
경지면적(ha)	2.5	3.1	2.4	3.3	4.0	2.7	2.2	2.0	2.1	4.38***
	2.2	2.6	2.0	4.4	4.1	2.5	1.6	2.2	1.1	
자작지 비율	80.5	79.5	83.0	81.0	72.4	79.6	79.4	84.3	84.5	0.96
	29.2	30.0	26.5	28.5	29.4	27.5	28.9	24.9	27.4	
외로움	47.7	51.7	53.9	50.9	58.3	61.9	49.8	49.2	60.7	3.02***
	27.9	27.4	30.3	29.3	26.8	25.1	29.4	31.0	25.4	
주관적 경제적수준	55.7	51.8	52.1	52.8	43.2	45.9	53.2	56.8	46.4	2.79***
	28.7	29.9	26.5	24.1	24.7	23.7	26.8	26.9	25.7	
농업인정책 만족도	23.1	26.4	26.1	24.3	21.9	23.8	28.0	31.8	16.1	2.44**
	18.2	22.9	24.2	21.6	22.1	20.8	19.6	21.2	15.8	
농사일 참여도	94.3	94.3	92.5	89.4	85.5	89.5	94.0	94.5	89.3	2.43**
	15.7	14.2	20.6	20.8	25.6	20.6	17.7	13.5	21.3	
농사 적성도	63.6	63.2	57.9	60.8	59.0	53.4	57.2	63.1	55.4	1.91*
	23.7	24.0	28.1	25.3	26.3	26.5	24.8	26.3	26.3	
여가	60.8	67.1	62.7	68.1	60.9	61.6	63.3	68.6	62.5	1.82*
	27.2	21.7	24.3	20.4	22.3	24.0	21.8	20.9	19.6	
건강	66.1	68.1	63.0	64.6	64.4	62.4	64.6	66.7	72.4	0.97
	16.9	17.8	17.3	20.7	28.6	19.8	17.5	19.4	17.8	
균형잡힌 식사	82.2	77.9	73.6	79.1	77.5	69.1	74.8	72.5	78.6	1.22
	30.9	32.5	37.6	32.9	35.5	37.0	36.1	38.5	30.8	
주관적 주택만족도	60.6	61.4	60.0	59.6	57.7	54.8	61.1	61.3	60.7	0.59
	35.1	25.8	32.0	30.4	31.0	29.7	29.9	31.2	21.3	

주: \* 평균, \*\* 표준편차

<표 3-9>는 지역별 소득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1000~2000 만원' 구간의 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00~3000 만원' 19.7%, '4000~5000 만원' 15.2%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2000~3000 만원' 22.9%, '1000~2000 만원' 15.7%, '4000~5000 만원'과 '5000~7000 만원' 각각 11.4% 순이고, 충북지역은 '500~1000 만원'과 '1000~2000 만원'이 각각 18.8%, '3000~4000 만원' 15.9% 순으로 조사되었다. 충남지역은 '1000~2000 만원' 18.7%, '2000~3000 만원' 16.8%, '3000~4000 만원' 13.1% 순이고, 전북지역은 '2000~3000 만원' 23.1%, '500~1000 만원'과 '1000~2000 만원'이 각각 14.1% 순이며, 전남지역은 '1000~2000 만원' 20.9%, '500~1000 만원' 18.0%, '2000~3000 만원' 15.8%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500~1000 만원' 15.2%, '1000~2000 만원' 13.6%, '2000~3000 만원' 13.6% 순이고, 경남지역은 '1000~2000 만원' 19.8%, '500~1000 만원' 18.1%, '2000~3000 만원' 12.9% 순이며, 제주지역은 '1000~2000 만원'과 '4000~5000 만원'에서 각각 21.4%로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2008년 한해 농가당 평균 판매액 기준으로 강원과 전남지역이 각각 3515 만원, 3692 만원으로 가장 낮고, 제주지역이 7128 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액은 충북지역과 전남지역이 각각 3346 만원, 3365 만원으로 가장 낮고, 제주지역과 경북지역이 각각 6947만 원, 6234 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채의 경우 경기지역과 경북지역이 각각 6670만원, 6671만원으로 낮게 집계되었고, 경남, 강원, 전북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9> 지역별 소득분포

소득/지역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500만원 미만	2* 3.0**	3 4.3	4 5.8	6 5.6	7 9.0	14 10.1	9 7.2	11 9.5	0 0.0	56
500~1000만원	8 12.1	5 7.1	13 18.8	15 14.0	11 14.1	25 18.0	19 15.2	21 18.1	1 7.1	118
1000~2000만원	14 21.2	11 15.7	13 18.8	20 18.7	11 14.1	29 20.9	17 13.6	23 19.8	3 21.4	141
2000~3000만원	13 19.7	16 22.9	7 10.1	18 16.8	18 23.1	22 15.8	17 13.6	15 12.9	2 14.3	128
3000~4000만원	8 12.1	7 10.0	11 15.9	14 13.1	9 11.5	14 10.1	16 12.8	14 12.1	2 14.3	95
4000~5000만원	10 15.2	8 11.4	8 11.6	12 11.2	7 9.0	17 12.2	15 12.0	9 7.8	3 21.4	89
5000~7000만원	8 12.1	8 11.4	8 11.6	6 5.6	7 9.0	9 6.5	14 11.2	6 5.2	1 7.1	67
7000~1억원	2 3.0	6 8.6	3 4.4	10 9.4	3 3.9	5 3.6	13 10.4	8 6.9	1 7.1	51
1억원 이상	1 1.5	6 8.6	2 2.9	6 5.6	5 6.4	4 2.9	5 4.0	9 7.8	1 7.1	39
총합	66 8.4	70 8.9	69 8.8	107 13.7	78 10.0	139 17.7	125 15.9	116 14.8	14 1.8	784 100

주: \* 빈도, \*\* 열%, p-value 0.8203

<표 3-10>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행복도

	구분	행복도 평균(표준편차)	F값
성별	남	59.8(18.9)	23.48***
	여	69.2(19.6)	
연령	40대 미만	75.0(19.6)	8.24***
	40~49세	66.3(17.7)	
	50~59세	62.1(18.4)	
	60~69세	58.5(19.6)	
	70~79세	57.3(19.0)	
	80세 이상	51.7(20.6)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57.7(17.2)	4.74***
	중졸	59.0(19.5)	
	고졸	61.7(19.0)	
	대졸 이상	66.3(19.5)	
현업 종사경력	5년 미만	74.0(20.0)	6.34***
	5~10년	65.0(18.7)	
	10~20년	70.7(20.0)	
	20~30년	61.0(18.2)	
	30~40년	60.3(20.5)	
	40~50년	60.4(17.2)	
	50년 이상	54.8(18.6)	
결혼여부	기혼	61.1(19.2)	0.62
	미혼	65.0(19.5)	
배우자유무	있음	61.4(19.1)	3.63*
	없음	55.5(21.6)	
거주형태	자녀와 함께 생활	64.1(19.6)	9.08***
	따로 떨어져 생활	59.7(18.9)	
가계소득	500만원 미만	55.3(24.1)	5.04***
	500~1000만원	54.9(18.1)	
	1000~2000만원	59.2(17.8)	
	2000~3000만원	60.5(19.0)	
	3000~4000만원	63.8(19.6)	
	4000~5000만원	62.8(18.6)	
	5000~7000만원	65.3(17.1)	
	7000~1억원	68.1(19.4)	
	1억원 이상	69.1(14.7)	

경지면적	0.5ha 이하	68.8(22.0)	1.62
	0.5~1ha	60.5(20.2)	
	1~1.5ha	58.2(20.3)	
	1.5~2ha	60.6(18.4)	
	2~3ha	61.3(19.1)	
	3~5ha	60.4(17.8)	
	5~7ha	60.9(17.7)	
	7~10ha	66.7(15.9)	
	10ha 이상	65.2(14.3)	
지역	강원	64.9(22.5)	1.90*
	인천·경기	60.0(16.4)	
	충북	56.0(19.7)	
	충남	60.6(20.2)	
	전북	59.1(17.0)	
	광주·전남	60.1(17.7)	
	대구·울산·경북	64.8(18.7)	
	부산·경남	62.2(20.9)	
	제주	56.3(18.2)	

주: \*\*\* p<0.01, \*\* p<0.05, \* p<0.1

## 2) 요인별 행복도 분석

### 가) 물질적 요인

본 연구는 각 요인별로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물질적 요인(사회경제적 요인)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명변수들을 취하였다. 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제주를 참조집단으로 설정), 성별 더미변수(여성을 참조집단으로 설정), 연령, 체질량 지수, 학력 더미변수(대학교 졸업을 참조집단으로 설정), 경지면적, 가계소득, 여가활동, 건강상태, 의료수준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더미 변수, 가계소득, 여가활동, 건강상태, 의료수준, 지역 더미변수이고 이들이 행복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약 28%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 활발할수록, 건강할수록, 의료수준이 높을수록 더 행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주지역에 비해 강원지역과 경북지역 농가가 행복도 점수에 있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학력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역 더미변수와 가계소득, 경지면적, 여가활동, 건강상태 등을 통제변수로 추가할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참조).

<표 3-11> 물질적 요인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Intercept		22.82505	7.29738	3.13
지역더미	강원	7.63477	3.97794	1.92
	경기	0.51762	3.91236	0.13
	충북	-1.23591	3.92955	-0.31
	충남	2.40911	3.71807	0.65
	전북	2.27657	3.84629	0.59
	전남	4.49836	3.60981	1.25
	경북	6.76432	3.63169	1.86*
	경남	2.91795	3.67257	0.79
성별(남) 더미		-7.45002	1.91756	-3.89***
연령		0.00308	0.0742	0.04
체질량지수		0.10096	0.07599	1.33
학력더미	초등졸 이하	-1.59327	2.74338	-0.58
	중졸	-3.10958	2.05228	-1.52
	고졸	-2.95749	1.84851	-1.6
경지면적		-5.90E-06	7.94E-05	-0.07
가계소득		0.872	0.34873	2.5**
여가활동		0.22168	0.02806	7.9***
건강상태		0.25854	0.03314	7.8***
의료수준		0.88285	0.48957	1.8*

주: \*\*\* p<0.01, \*\* p<0.05, \* p<0.1

## 나) 심리적 요인

한편 심리적 요인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명변수를 취하였다. 먼저 연령과 경지면적, 배우자 더미변수(배우자 없는 농가를 참조집단으로 설정), 거주형태 더미변수(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은 농가를 참조집단으로 설정)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외로움 정도, 주관적 경제적 수준, 자녀의 행복수준, 농사일 참여도, 농사적성도, 주관적 주택 수준, 주관적 교육환경, 긍정적 정서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외로움 정도, 주관적 경제적 수준, 자녀의 행복수준, 농사일 참여도, 농사 적성도, 주관적 주택수준, 긍정적 정서, 연령 등이 행복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의해 전체 변인의 약 41%가 설명되었다.

즉 덜 외로울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농사일 참여가 낮을수록, 농사일 적성도가 높을수록, 주택수준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긍정적 정서를 실현할수록 농가들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12> 참조).

농사일 참여도에 대해서 연령별로 60세 이하와 61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재차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농사일 참여도와 행복도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61세 이상 고령으로 인하여 농사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되는 농업인에 있어서는 농사일 참여도와 행복도가 역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61세 이후에도 계속 활발하게 일하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신체, 정신 건강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적 필요성이나 사회적 고립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 정신적 고통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61세 이후 농업인들의 농사 참여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낮게 계측된 것은 경제적 환경과 건강상태가 직접적인 요인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고령 농업인의 농사일 참여가 비자발적 측면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3-12> 심리적 요인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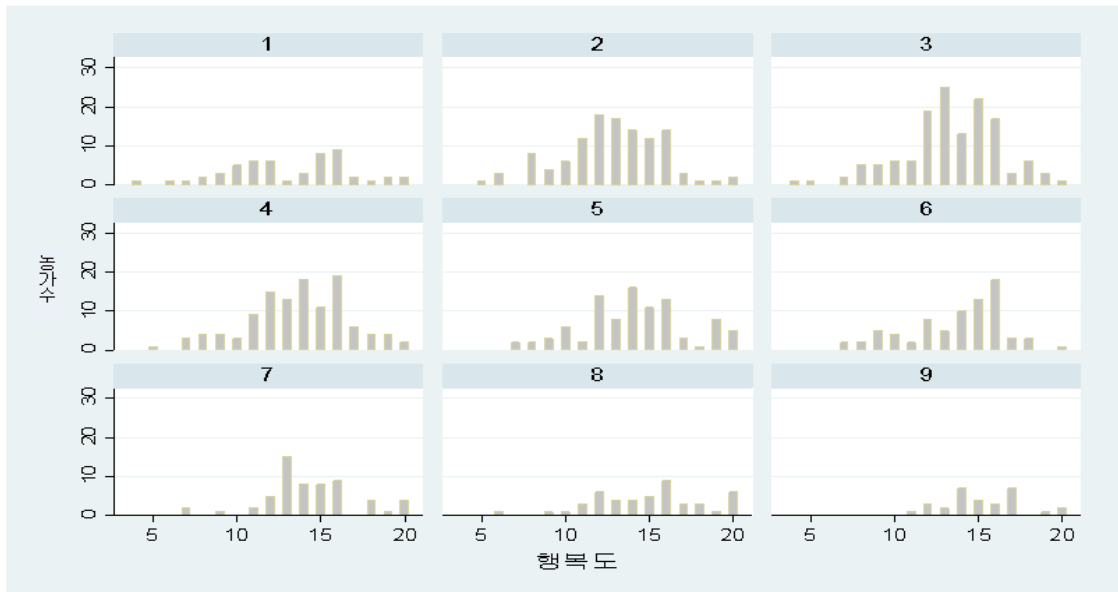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Intercept	57.07138	6.65466	8.58
연령	-0.23699	0.05878	-4.03***
경지면적	-4.91E-05	6.976E-05	-0.7
배우자(유)	2.49848	2.91284	0.86
자녀와 생활	0.61317	1.32744	0.46
외로움	-0.16055	0.02184	-7.35***
주관적 경제수준	0.15868	0.02517	6.3***
자녀의 행복수준	0.12616	0.02684	4.7***
농사일 참여도	-0.07405	0.03147	-2.35**
농사적성도	0.04912	0.01479	3.32***
주관적 주택수준	0.1303	0.02027	6.43***
주관적 교육환경	0.02768	0.02267	1.22
긍정적정서	0.0609	0.02843	2.14**

주: \*\*\* p<0.01, \*\* p<0.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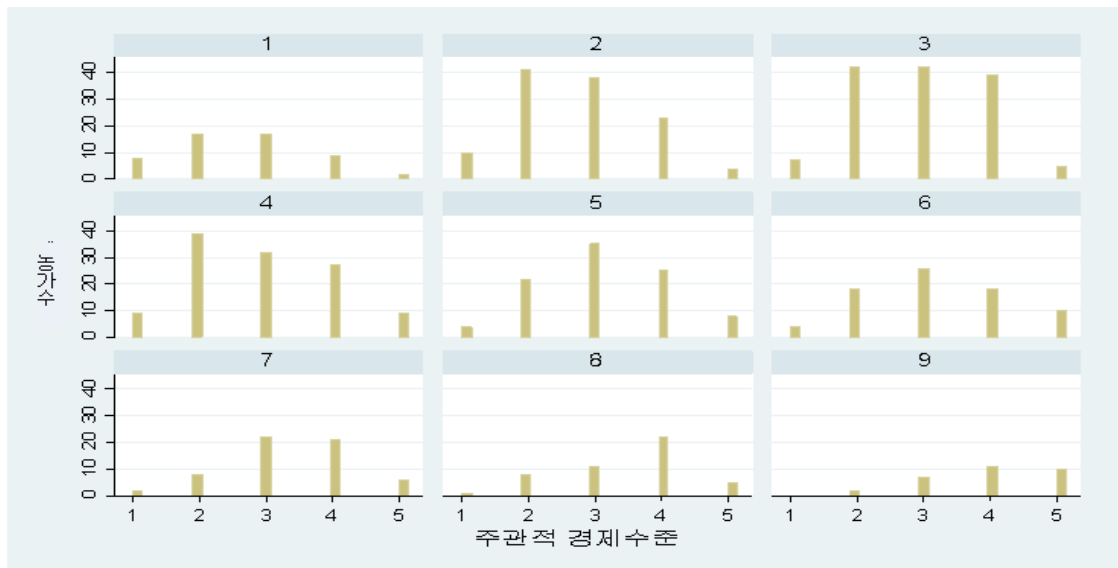
<그림 3-41>은 소득과 행복도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1번(500만원 미만)부터 9번(1억원 이상)까지 소득별로 행복도에 대한 빈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행복도는 가장 빈도가 높은 ‘500~3000 만원(2,3,4번 그래프)’ 소득수준에서 평균 행복도(13.8)를 중심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관계는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2>는 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7천만원~1억원’, ‘1억원 이상(8,9번 그래프)’ 소득수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보통이다’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 소득과 행복도와의 관계



<그림 3-42> 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과의 관계



다) 미덕

(1) 미덕과 행복도와의 관계

<표 3-13>은 미덕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명변수를 취하였다. 성별 더미변수(여성을 참조집단으로 설정), 연령, 체질량 지수, 학력 더미변수(대학교 졸업을 참조집단으로 설정), 자작지 비율, 결혼 더미변수(미혼을 참조집단으로 설정), 배우자 더미변수(배우자가 없음을 참조집단으로 설정), 주거형태 더미변수(자녀와 따로 떨어져 생활을 참조집단으로 설정), 지혜와 지식,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감, 영성과 초월성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지혜와 지식, 영성과 초월성이 각각 유의수준 10%, 1%에서 행복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미덕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Intercept	42.44645	9.51115	4.46
성별(남)	-4.40828	2.58429	-1.71
연령	-0.08565	0.08456	-1.01
체질량지수	0.09527	0.11316	0.84
초등학교졸	-3.37701	3.46146	-0.98
중졸	-3.20923	2.64249	-1.21
고졸	-2.62813	2.3756	-1.11
자작지 비율	0.01323	0.00976	1.36
기혼	-2.75808	6.22472	-0.44
배우자 있음	4.68774	3.92685	1.19
자녀와 함께 생활	1.70985	1.90027	0.9
지혜와 지식	0.12807	0.06628	1.93*
용기	0.02321	0.05446	0.43
사랑과 인간애	0.00916	0.04574	0.2
정의감	-0.05402	0.04806	-1.12
영성과 초월성	0.24612	0.07001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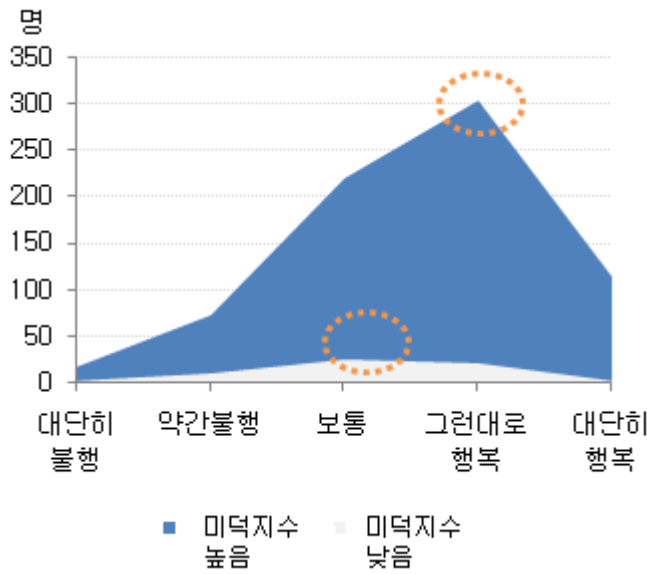
주: \*\*\* p<0.01, \*\* p<0.05, \* p<0.1



<그림 3-43>과 <표 3-14>는 미덕과 강점에 따른 행복도를 제시하고 있다. 미덕지수가 낮은 농가의 경우 행복도에 있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이고, ‘그런대로 행복하다’ ‘대단히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덕지수가 높은 농가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2%이고, ‘그런대로 행복하다’, ‘대단히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7.3%로 미덕지수가 낮은 농가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43> 미덕과 강점에 따른 행복도



<표 3-14> 미덕과 강점에 따른 행복도

행복도	미덕 (영생과 초월성)		총합
	미덕지수 낮음	미덕지수 높음	
대단히 불행	3* 4.6**	18 2.5	21
대체로 불행	11 16.9	73 10	84
보통	26 40	219 30.2	245
대체로 행복	22 33.9	302 41.6	324
대단히 행복	3 4.6	114 15.7	117
총합	65 8.2	726 91.8	791 100
p-value	0.0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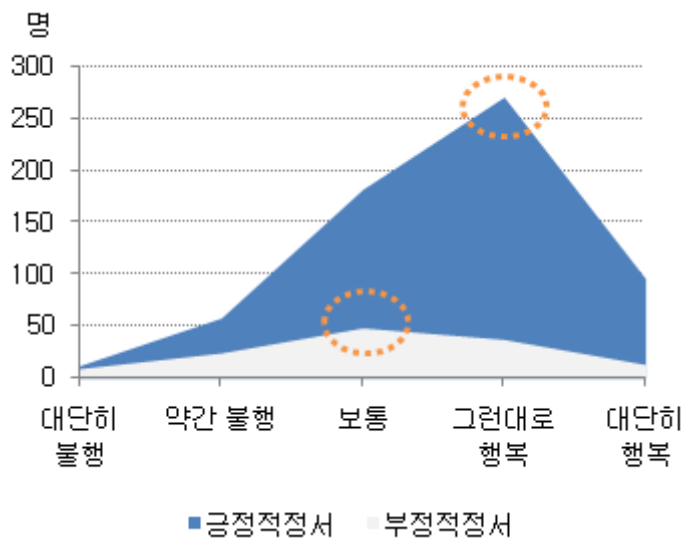
주: \* 빈도, \*\* 열%

(2) 긍정적 정서와 행복도와의 관계

<그림 3-44>과 <표 3-15>는 긍정적 정서에 따른 행복도를 제시하고 있다. 부정적 정서를 지닌 농가의 경우 행복도에 있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이고, ‘그런대로 행복하다’ ‘대단히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긍정적 정서를 지닌 농가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4%이고, ‘그런대로 행복하다’, ‘대단히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9.2%로 긍정적 정서를 지닌 농가일수록 행복도에 있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4> 긍정적 정서에 따른 행복도



<표 3-15> 긍정적 정서에 따른 행복도

행복도	정서유형		총합
	부정적 정서	긍정적정서	
대단히 불행	9 6.8	12 1.9	21
대체로 불행	24 18.3	58 9.3	82
보통	48 36.6	182 29.4	230
대체로 행복	37 28.2	271 43.7	308
대단히 행복	13 9.9	96 15.5	109
총합	131 17.4	619 82.5	750
p-value	< 0.0001		100

주: \* 빈도, \*\* 열%

### (3) 미덕과 물질적 요인과의 관계

연령과 소득에 따른 미덕<sup>2)</sup>의 실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은 농가에서 미덕의 발현 정도가 높았고, 이와는 반대로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에서는 미덕의 발현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표 3-16> 참조). 즉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은 농가에서 지혜와 지식, 영성과 초월성이라는 두 가지 미덕의 실현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대표 강점, 예를 들어 학구열, 판단력, 비판적 사고, 열린 마음, 대인관계 지능, 창의성, 독창성, 감사하는 마음, 낙관주의, 미래지향성 등이 해당 환경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3-17> 참조).

한편 여가활동과 소득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에 있어서는 분석 결과, 소득이 높고 여가활동이 활발한 농가에서 미덕의 발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와는 반대로 소득이 낮고 여가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미덕의 발현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표 3-13> 참조).

<표 3-16> 연령과 소득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연령 \ 소득	500 미만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7000	7000 -1억원	1억원 이상
40대미만			72.9	70.5	78.9	65.6	73.2	70	68.3
40-49세	73.9	53.8	61.9	67	75.5	77.9	75.7	78.8	80.4
50-59세	57.1	71.5	67.5	71	65.8	68.1	76.2	68.1	73.1
60-69세	63.9	66.3	67.4	65.4	69.9	66.3	82.7	76.5	72.3
70-79세	58.7	63.7	65.8	68.9	66.1	75.6	67.8	71.4	57.5
80세 이상	62.9	66.9	58	64.7		57.1			

주: P-value 연령 <.0001, 가계소득 <.0001

<표 3-17> 여가활동과 소득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여가활동 \ 소득	500 미만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7000	7000 -1억원	1억원 이상
매우 낮음	60.1	54.3		69.2	58		76.5		
대체로 낮음	61.5	62.8	62.8	65.8	70	64.5	70.4	68.9	74.4
보통	60.8	64.4	63	64.6	67.9	68.8	77.7	71.7	73.8
대체로 높음	62.6	65.2	64.6	69.3	71.8	70.5	73.1	72.9	72.5
매우 높음	63.9	71	68.4	66	66.9	70.9	77.5	74.2	76.2

주: P-value 여가활동 <0.0031, 가계소득 <.0001

2) 여기서의 미덕은 행복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혜와 지식, 영성과 초월성을 일컫음.

<표 3-18>은 경지면적과 영농경력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경지면적은 미덕의 실현 정도와는 무관하고, 다만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에서 경지면적과는 무관하게 미덕의 실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영농경력이 긴 농가(30년 이상)일수록 대부분의 경지면적에서 미덕의 실현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경지면적과는 무관하고, 영농경력이 긴 농가보다는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에서 훨씬 더 높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3-18> 경지면적과 영농경력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경지면적 \ 영농경력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이상
0.5ha 이하	86.9	71.3	79.7	69.6	55.7	60.3	67.1
0.5-1ha	76.7	82.7	72.6	69.3	65.4	61.6	63.8
1-1.5ha	75.1	82.3	72.2	71.2	65.4	66.9	60
1.5-2ha	76.2		79.6	70.4	67.6	67.1	62.2
2-3ha	68.6	76.2	76	66.5	66.7	67.1	65.4
3-5ha		79.8	70	71.5	67.4	70.4	66.7
5-7ha		57.1	80.7	71.8	63.3	67.3	
7-10ha	92	69.3	70.5	72.3	72	71.2	50.6
10ha 이상		74.1	70.8	73.5	73		

주: P-value 경지면적 0.0977, 영농경력 <.0001

#### (4) 긍정적 정서와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

두 범주형 즉,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와 심리적 요인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hi^2$ (chi-square)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와 외로움 정도의 상호 연관성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가 낮은 농가보다는 높은 농가에서 덜 외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에 있어서도 소득이 높은 농가가 낮은 농가보다 외로움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19> 참조).

주관적 경제 수준과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 간의 연관 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 역시 높았고, 소득수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은 농가에서 주관적 경제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0> 참조).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해 소득이 7000 만원 미만의 농가에서는 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과의 연관성이 7000 만원 이상의 농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에 따라 외로움 정도와 주관적 경제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적 정서를 발휘함으로써 외로움 정도가 낮아지고, 주관적 경제수준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3-19> 소득, 긍정적정서에 따른 외로움 정도

외로움 정도	소득		긍정적정서의 발현정도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매우 낮음	28(6.2)	32(9.3)	4(3.0)	49(7.9)
대체로 낮음	97(21.5)	119(34.6)	30(22.7)	175(28.1)
보통	98(21.7)	55(16.0)	17(12.9)	131(21.1)
대체로 높음	173(38.4)	112(32.6)	55(41.7)	214(34.5)
매우 높음	55(12.2)	26(7.6)	26(19.7)	52(8.4)
p-value	<.0001		<.0001	

주: ( ) 표준편차

<표 3-20> 소득, 긍정적정서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수준

주관적 경제적 수준	소득		긍정적정서의 발현정도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매우 낮음	39(8.6)	12(3.5)	16(12.1)	29(4.7)
대체로 낮음	150(33.2)	64(18.5)	38(28.8)	164(26.3)
보통	138(30.5)	115(33.3)	41(31.1)	196(31.5)
대체로 높음	105(23.2)	107(31.0)	30(22.7)	176(28.3)
매우 높음	20(4.4)	47(13.6)	7(5.3)	58(9.3)
p-value	<.0001		0.0084	

주: ( ) 표준편차

<표 3-21>은 소득, 긍정적 정서에 따른 자녀의 행복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가 높은 농가에서 자녀의 행복수준이 ‘대체로 높다’와 ‘매우 높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0.7%로써,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가 낮은 농가 32.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사일 참여도와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와의 연관성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가 높은 농가에서 농사일 참여도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22> 참조).

<표 3-21> 소득, 긍정적정서에 따른 자녀의 행복수준

자녀의 행복수준	소득		긍정적정서의 발현 정도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매우 낮음	18(4.0)	3(0.9)	6(4.6)	12(2.0)
대체로 낮음	48(10.7)	28(8.3)	20(15.3)	55(9.0)
보통	233(52.1)	141(42.0)	63(48.1)	295(48.4)
대체로 높음	115(25.7)	99(29.5)	34(26.0)	167(27.4)
매우 높음	33(7.4)	65(19.4)	8(6.1)	81(13.3)
p-value	<.0001		0.0182	

주: ( ) 표준편차

<표 3-22> 소득, 긍정적정서에 따른 농사일 참여도

농사일 참여도	소득		긍정적정서의 발현 정도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매우 낮음	7(1.6)	0(0.0)	3(2.3)	3(0.5)
대체로 낮음	10(2.2)	2(0.6)	5(3.8)	8(1.3)
보통	46(10.2)	17(4.9)	10(7.6)	52(8.4)
대체로 높음	50(11.1)	22(6.4)	18(13.6)	52(8.4)
매우 높음	339(75.0)	304(88.1)	96(72.7)	508(81.5)
p-value	<.0001		0.0124	

주: ( ) 표준편차

<표 3-23>는 소득, 긍정적 정서에 따른 농사일 적성도를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가 높은 농가에서 농사일 적성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32.8%, ‘대체로 적성에 맞다’ 31.7%, ‘매우 적성에 맞다’ 16.4%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0.9%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가 낮은 농가에서는 ‘보통이다’ 34.9%, ‘대체로 적성에 맞다’ 22.7%, ‘매우 적성에 맞다’ 7.6%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5.2%로써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가 높은 농가에서 농사일 적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 적성도와 소득수준과의 연관성 역시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사일 적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23> 소득, 긍정적정서에 따른 농사 적성도

농사 적성도	소득		긍정적정서의 발현정도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매우 낮음	18(4.0)	5(1.5)	11(8.3)	11(1.8)
대체로 낮음	111(24.6)	34(9.9)	35(26.5)	107(17.2)
보통	160(35.4)	112(32.6)	46(34.9)	204(32.8)
대체로 높음	119(26.3)	116(33.7)	30(22.7)	197(31.7)
매우 높음	44(9.7)	76(22)	10(7.6)	102(16.4)
p-value	<.0001		<.0001	

주: ( ) 표준편차

### (5) 미덕과 물질적·심리적 요인과의 관계

<표 3-24>과 <표 3-25>는 각각 연령과 농사일 참여도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와 긍정적 정서의 실현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미덕과 긍정적 정서의 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연령과 농사일 참여도를 설명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낮고 농사일 참여도가 높은 농가에서 미덕과 긍정적 정서의 실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의 농업인에 있어서 농사일 참여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의 실현 정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동시에 연령에 따른 긍정적 정서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비록 61세 이상 고령농에서는 농사일 참여도와 행복도와는 역관계에 있지만, 신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농가일수록 농사일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24> 연령과 농사일 참여도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농사일참여도 \ 연령	40대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매우 낮음			66.4	56.3	70.6	67.6
대체로 낮음		65.8	65.9	61.9	67.6	46.4
보통		62.1	71.7	66.3	68.6	65.1
대체로 높음	79.8	75.6	70.7	65.1	64.8	67.6
매우 높음	71.1	70.7	69.2	67.2	64.6	59.5

주: P-value 농사일 참여도 0.08347, 연령 <.0001

<표 3-25> 연령과 농사일 참여도에 따른 긍정적정서의 실현 정도

농사일참여도 \ 연령	40대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매우 낮음			60	60	40	
대체로 낮음		80	80	30	50	20
보통	60	66	65	72	68.1	40
대체로 높음	86.7	74.3	60	61.8	59.3	55
매우 높음	77.5	74.5	71.3	65	65	70

주: P-value 농사일 참여도 0.0002, 연령 <.0001

<표 3-26>은 영농경력과 농사일 적성도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일수록 농사일 적성도와 무관하게 미덕의 실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영농경력이 긴 농가일수록 농사일 적성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농가만이 미덕의 실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보다 긴 농가에 대해 미덕의 발현을 돕기 위한 ,즉 행복을 충족시키는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표 3-26> 영농경력과 농사일 적성도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농사일적성도 \ 영농경력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이상
매우 낮음		66.4	75.7	69.4	62.9	65.5	50.3
대체로 낮음	79.7	69.3	70.9	69.9	62.4	65.2	63
보통	70.2	76.5	73.1	68.2	66	64.9	61.6
대체로 높음	73.3	72.3	70.8	70.7	67.5	66.8	66.6
매우 높음	77.6	72.8	77.8	73.5	73.2	72.8	66.1

주: P-value 농사일 적성도 <.0001, 영농경력 <.0001

외로움과 건강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하고 외로움 정도가 낮은 농가에서 미덕의 발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들의 건강을 위한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외로움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표 3-27> 참조).



<표 3-27> 건강과 외로움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

외로움 \ 건강	아주 나쁨	나쁜 편임	보통	좋은 편임	매우 좋음
전혀 느끼지 않음		58	68.8	72.8	76.9
느끼지 않음	81.2	69.4	68.5	72.2	
보통	60.2	62.3	64.3	67.5	72.9
가끔 느낌	59.2	63.7	67.8	67.8	72
자주 느낌	63.1	59.9	64.3	72.5	64.6

주: P-value 외로움 0.0014, 건강 <.0001

한편, 농가의 건강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령별, 영농경력별, 주관적 의료 수준별로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령별로 건강상태를 비교하여 본 결과 '40세 미만'에서는 모든 농가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40~49' 98.4%, '50~59' 94.8%, '60~69' 92.9%, '70~79' 83.4%, '80세 이상' 63.6%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건강상태의 양호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참조).

<표 3-28>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 비교

건강상태	연령						총합
	40세 미만	40-49	50-59	60-69	70-79	80세 이상	
매우 나쁨	0* 0.0**	0	0	2	10	3	15
대체로 나쁨	0	2	13	12	20	1	48
보통	7	34	82	96	75	4	298
대체로 좋음	8	51	100	53	41	1	254
매우 좋음	15	42	55	33	35	2	182
총합	30	129	250	196	181	11	797
	3.8	16.2	31.4	24.6	22.7	1.4	100

주: \* 빈도, \*\* 열%, p-value <0001

<표 3-29>는 영농경력에 따른 건강상태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영농경력이 '5~20년'된 농가의 경우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였고, 영농경력이 길수록 건강상태의 양호 정도는 낮아진 것으

로 파악되었다.

<표 3-29> 영농경력에 따른 건강상태 비교

건강 상태	영농경력							총합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이상	
매우 나쁨	0* 0.0**	0 0.0	0 0.0	0 0.0	2 0.9	4 2.4	9 8.7	15
대체로 나쁨	0 0.0	0 0.0	1 1.3	7 4.0	11 5.0	13 7.7	16 15.5	48
보통	4 33.3	6 21.4	11 14.7	66 37.7	91 41.2	73 42.9	43 41.8	294
대체로 좋음	4 33.3	8 28.6	30 40.0	67 38.3	71 32.1	49 28.8	19 18.5	248
매우 좋음	4 33.3	14 50.0	33 44.0	35 20.0	46 20.8	31 18.2	16 15.5	179
총합	12 1.5	28 3.6	75 9.6	175 22.3	221 28.2	170 21.7	103 13.1	784 100

주: \* 빈도, \*\* 열%, p-value <.0001

주관적 의료수준별로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해당 지역의 의료수준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농가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이 7.1%이었으나, 반대로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농가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이 11.9%로 의료수준이 낮다고 느끼는 농가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30> 참조).

<표 3-30> 주관적 의료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비교

건강상태	주관적 의료수준					총합
	매우 나쁨	대체로 나쁨	보통	대체로 좋음	매우 좋음	
매우 나쁨	1* 1.0**	7 3.2	6 1.9	1 0.7	0 0.0	15
대체로 나쁨	11 10.9	14 6.5	17 5.4	4 3.0	2 7.1	48
보통	39 38.6	89 41.0	109 34.6	45 33.3	16 57.1	298
대체로 좋음	35 34.7	60 27.7	104 33.0	48 35.6	7 25.0	254
매우 좋음	15 14.9	47 21.7	79 25.1	37 27.4	3 10.7	181
총합	101 12.7	217 27.3	315 39.6	135 17.0	28 3.5	796 100

주: \* 빈도, \*\* 열%, p-value 0.0077

<표 3-31>은 각각 거주형태, 농사일 참여도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와 의료수준, 농사일 참여도별로 나타난 미덕의 실현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한 농가의 농사일 참여도가 높을수록 미덕의 실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수준과 농사일 참여도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31> 미덕의 기타 물질적요인별·농사일 참여도별 차이

농사일 참여도	거주형태		의료수준	
	자녀와 함께 생활	따로 떨어져 생활	높음	낮음
매우 낮음	67.8(11.8)	62.6(10.1)	64.3(10.9)	59.6(0.2)
대체로 낮음	67.9(10.8)	64.2(11.3)	65.2(10.6)	67.0(13.9)
보통	70.7(10.4)	65.5(12.8)	67.4(11.9)	62.1(15.0)
대체로 높음	71.3(12.0)	67.3(11.4)	68.4(11.9)	70.0(9.9)
매우 높음	72.5(13.9)	69.2(13.6)	70.5(13.7)	65.5(13.8)
p-value	농사일 참여도 0.0038 거주형태 <.0001		농사일 참여도 0.0031 의료수준 0.3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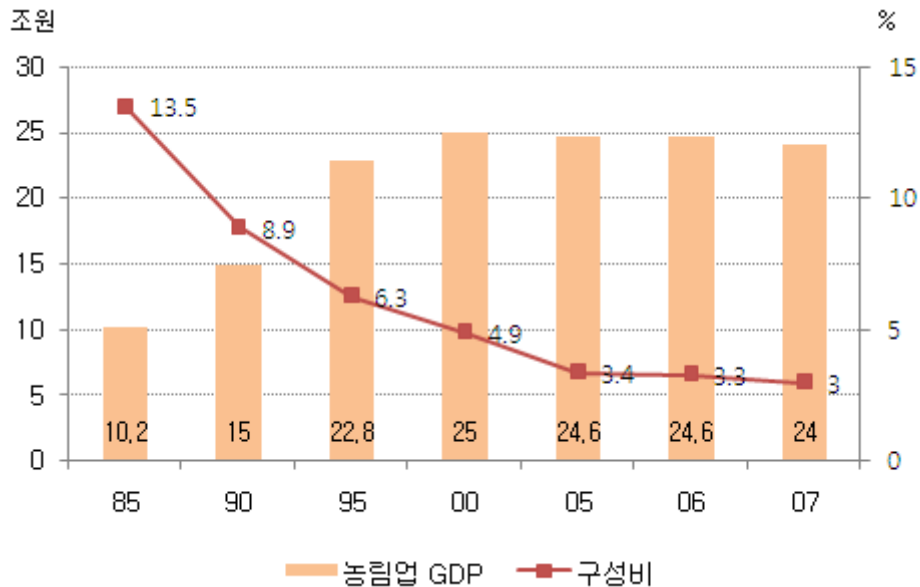
주: ( ) 표준편차

## 4. 농가를 위한 행복도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 가. 농업 정책

농업의 국가 경제적 비중과 위상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WTO/DDA 협상 진전 등으로 농업분야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림 4-1>은 1985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업 GDP 및 비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1985년 약 10조 2,000억원이던 농업 GDP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25조원, 2007년에는 약 24조원으로 절대규모에 있어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체 GDP 대비 농업 비중의 경우는 1985년 13.5%에서 2007년 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농업GDP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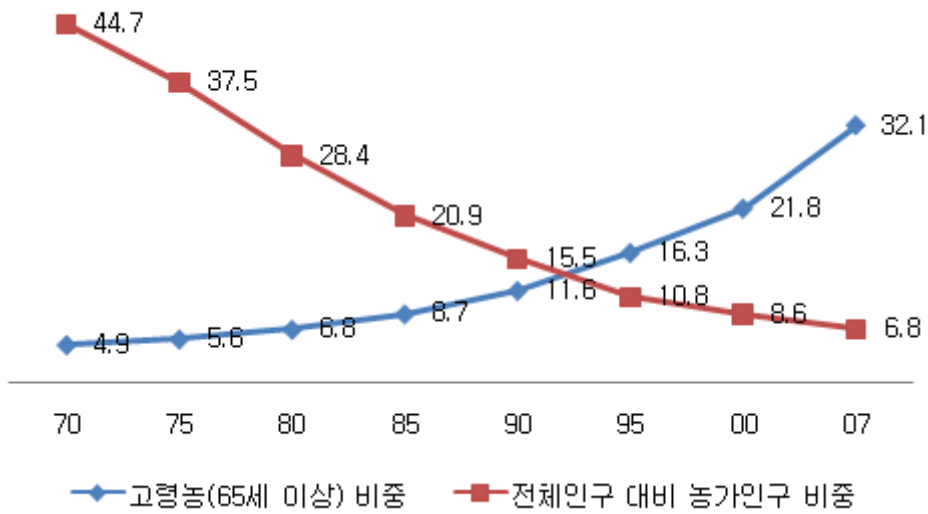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또한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농업 생산성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4-2>는 총인구대비 농가인구의 추세를 제시하고 있는데 1970년 총인구의 44.7%이던 농가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에는 6.8%이고, 2012년에는 5.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율도 1970년 4.9%에서 2007년 32.1%로 과거 40년 동안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 농가인구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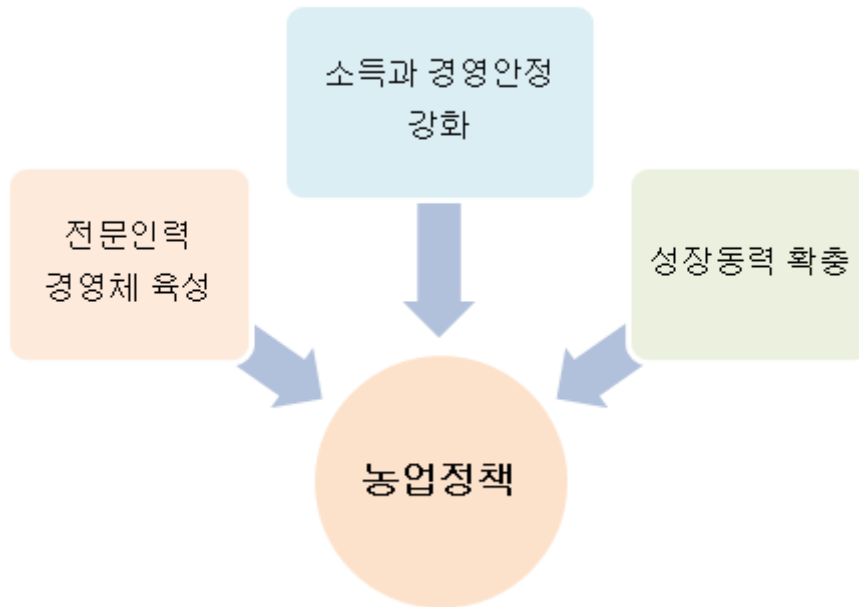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물부

이와 같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활력을 되찾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 정부는 이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과감한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농정변화와 개혁, 농어업 역량강화, 농수산물 수요 창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의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직불제 개편, 유통구조 개혁, 농식품 수출 확대, 농어가 경영 안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저소득·취약계층 생활 지원, 농어촌 산업 활성화 등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사결과 나타난 농업인 행복도 개선과 관련하여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현 정부의 농업정책은 크게 전문인력 경영체 육성, 소득과 경영안정 강화,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 등 세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을 위해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농지교환분할사업 등을 통한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농자재값 상승에 대응한 경영안정 지원과 직접지불제 확충을 통해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산지-소비지를 연결하는 국산 농축산물 판매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는 등 생산자-소비자 지향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업 성장 동력의 축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그림 4-3> 참조)

<그림 4-3> 농업정책



### 1) 전문인력 경영체 육성

먼저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및 실습형 교육훈련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신규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혁신 및 현장애로 등의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08년 1200개 경영체, 51억원→09년 1,500개 경영체, 61억원)을 확대하고 있고, 창업후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정착 자금(최고 2억원, 연리 3%)을 지원(08 280억원 → 09년 334억원)하고 있다. 그리고 실습형 현장 학습체계 강화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을 대폭 강화(215억원→364)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는 농업인 품목단체 교육, 실습중심 전문 교육,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교육지원, 창업지식·기술교육 지원, 특성화농고 현장체험 교육 지원, 농대 영농정착 교육과정 창업교육 지원 등이 있다.

또한 30~40대 젊은 인재 유치를 위해 주거·자녀교육·농어업 기술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신규추진을 도모하고 있는데, 선정방식은 시·군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며 2009년에 21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은 임대차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3년까지 전체 쌀 생산량의 50% 수준을 쌀전업농이 담당토록 하며 6ha 규모의 7만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말 6ha 이상 농가수는 1만 2천호이며, 2009년도 예산 배정액은 전년에 비해 888억원 감소한 2,512억원이다.

## 2) 소득과 경영안정 강화

<표 4-1>은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분야별 예산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의 일반지출 규모는 9조 6,076억원으로 2008년 대비 7.8%(6,993억원) 증가하였고, 기금의 일반지출은 4조 9,085억원으로 2.7%(1,381억원) 감소하였다. 농림수산 분야 중 농업·농촌분야는 12조 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694억원) 증가하였는데, 하위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업·농촌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게 책정된 항목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로 2조 6,763억원, 2008년 예산 대비 14.5%(4,543억원) 감소하였고, 그 다음이 농업체질 강화 분야로 2조 5,140억원(11.1% 증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2조 1,924억원(12.5% 증가), 농산물 유통 1조 7,393억원(6.3% 증가), 양곡관리 1조 4,970억원,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1조 4,174억원(8.0% 증가) 순이다.

<표 4-1>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현황(2009)

단위: 억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 총지출(예산+기금)	139,549	145,161	5,612	4.0
◇ 예산 일반지출	89,083	96,076	6,993	7.8
◇ 기금 일반지출	50,466	49,085	△1,381	△2.7
<b>I. 농림수산</b>	<b>135,237</b>	<b>140,768</b>	<b>5,531</b>	<b>4.1</b>
□ 농업·농촌	116,670	120,364	3,694	3.2
○ 농업체질강화	22,628	25,140	2,512	11.1
○ 농가소득 경영안정	31,306	26,763	△4,543	△14.5
○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13,121	14,174	1,053	8.0
- 농촌개발	9,541	10,107	566	5.9
- 복지증진	3,580	4,067	487	13.6
○ 양곡관리	13,763	14,970	1,207	8.8
○ 농산물유통	16,361	17,393	1,032	6.3
○ 농업생산기반	19,491	21,924	2,433	12.5
□ 수산업·어촌	14,139	14,984	845	6.0
□ 식품업	3,757	4,739	982	26.1
□ 기타사업비	671	681	10	1.5
<b>II. 기본적인경비</b>	<b>4,312</b>	<b>4,393</b>	<b>81</b>	<b>1.9</b>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소득과 경영안정 강화에는 직불제 확충, 농업생산비 절감, 에너지 R&D 강화, 농기계은행 활성화, 농가 경영회생 지원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통합, 농식품 수급 안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쌀 직불제도 확충과 관련하여 정부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제도로 정착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되, 도시 거주자는 엄격히 심사한 후 인정한다. 농업 외에서 일정 금액이상 소득이 있는 자와 신규로 진입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급상한을 설정하였다.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있게 확대·개편,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및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은퇴시점부터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하고, 매도·임대 이양을 동일한 조건으로 월 1ha당 25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내 논에서 진흥지역 내 논·밭 과수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농어업·농어촌 환경보전 등 공익적 성격의 직불제를 확충하여 친환경·안전 축산물 직불제(10억원) 및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제를 신규 도입하고,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면적을 확대하는 등 직불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비료·사료·유류의 가격상승분 보조, 에너지·자원 절감기술 개발 및 보급 등으로 농어가 경영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인 사료, 비료, 유류 등의 가격안정지원으로 농어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에너지 및 자원 절감형 대체 농자재 개발 및 보급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부채농가 등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지 외에 농업용 시설(축사, 유리온실 등)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1,195억원에서 2009년 1450억원으로 255억원을 증액하였다. 경영위기 농가의 신속대응을 위해 지원신청 횟수를 확대하고, 일률적인 부채대책에서 탈피하여 경영위기 사유 및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넷째,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대상 및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과수위주에서 식량·채소작물 등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하고,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농어업용 시설물을 포괄하는 위험관리 종합시스템(all-risks 보장방식)을 구축하였다. 2008년 15개 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감귤, 밤, 참다래, 자두 등)에서 2009년 20개로 확대 실시하고 있고, 특히 벼 재해보험 시범사업(전국 20개 시군 대상, 20억원) 도입으로 재해보험 수혜농가를 대폭 확대하였다.

## 나. 농촌복지 정책

### 1) 우리나라의 농촌복지 정책

#### 가) 복지 여건

최근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sup>3)</sup>(한국농촌경제연구원)결과에 따르면 농업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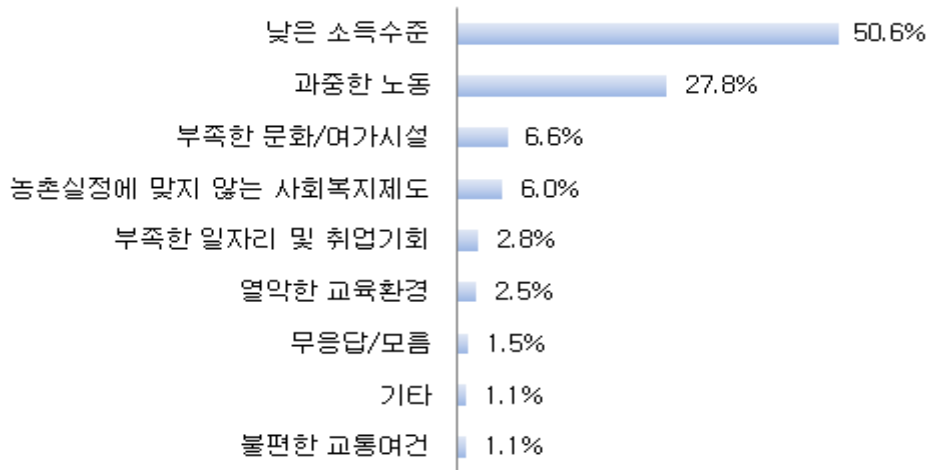
---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해당조사를 위해 2008년 9월5일부터 9월26일까지 도시민 1,508명과 농업인 2,000명(666건 회수)을 대상으로 도시민은 방문면접을, 농업인은 우편조사를 실시함.



이 농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낮은 소득’(50.6%), ‘과중한 노동’(27.8%), ‘부족한 문화/여가시설’(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대표적으로 ‘농촌주민의 교육과 건강증진 시설 확충’(28.1%), ‘농촌지역 사업체에 투자확대’(27.8%)이며,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복지분야로는 대표적으로 ‘노인복지’(60.8%), ‘저소득층복지’(22.8%)를 꼽았다(<그림 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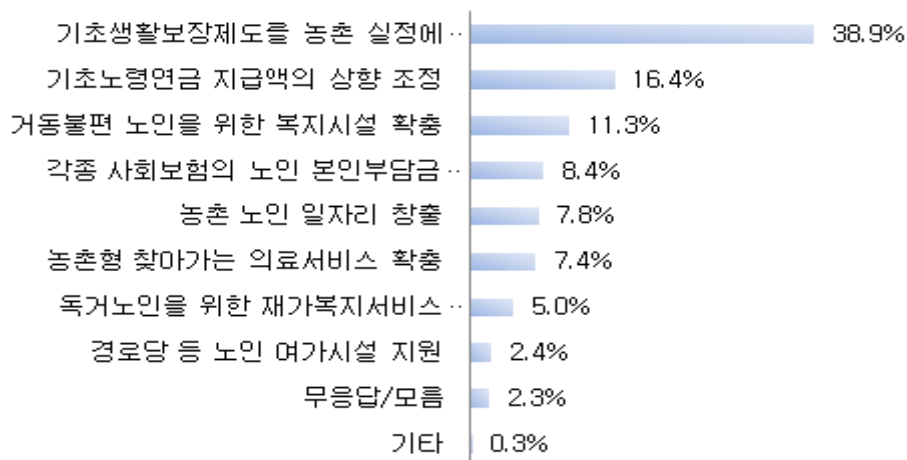
<그림 4-4> 농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또한 농업인들은 농촌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선진복지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38.9%),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상향조정’(16.4%),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11.3%)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그림 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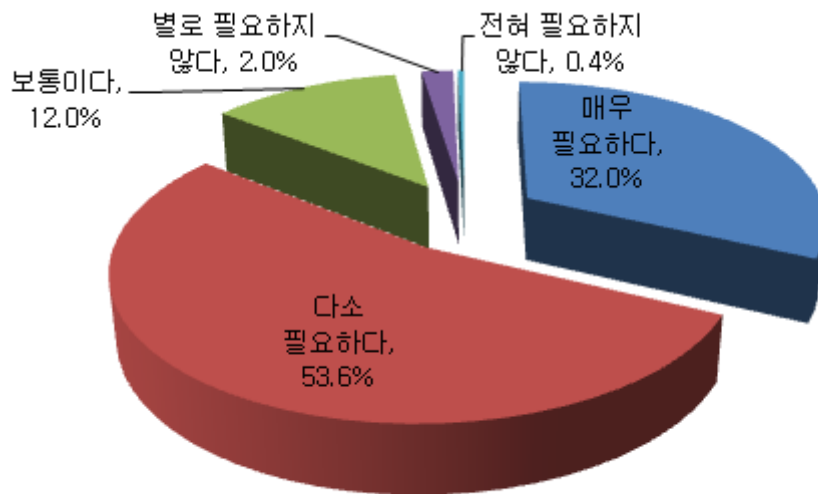
<그림 4-5> 개선이 요구되는 복지정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한편, 농촌지역에 '특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도시민은 '매우 필요', '다소 필요'를 합쳐 85.6%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12.0%는 '보통이다'로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농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73.3%가 찬성했고, 반대는 4.0%에 그쳐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찬성비율은 '06년 조사결과보다 2.1%p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도시민들은 고령농업인을 위한 우선적인 지원책으로 '생활비 지원', '아플 때 교통수단 지원', '먹을거리 지원', '경로 돌봄이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4-6> 참조).

<그림 4-6> 농촌지역에 특별한 복지정책 필요성 여부(도시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이와 같이 현재 농촌생활에서 농업인 중 상당수가 낮은 소득과 과중한 노동, 그리고 부족한 문화·여가 생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령농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민 역시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농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업인 복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원하는 대상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농촌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사회안전망 정비에 힘써 왔다. 하지만 농업인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 그리고 농촌 공동화로 인한 이웃 간의 낮은 유대관계 등으로 인해 현 정책은 실 복지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농촌 현실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복지서비스의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농촌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 주요 복지정책

우리나라의 농촌복지정책은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자·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집단에게 정부 등 공공부문이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제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보호가 필요한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자립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를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로 주거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응급 복지지원제도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보장 급여를 하는 것으로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노인요양보험, 주택연금 등을 들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킨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며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1989년 7월1일부터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전 국민의 96.3%인 4,816만 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3.7%인 184만명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주민, 도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는 교육, 보건·의료, 영·육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농업과 달리 복지·교육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농어촌 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 3월 제정하였고, 2005년 4월 2005년~2009년까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농업·농촌종합대책」 중 농촌분야 세부대책으로 농어촌을 최소한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복합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교육개선·지역서 개발 및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복지 정책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2009년, 총 1조 4,174억원의 예산을 편성, 농촌개발분야에 1조 107억원, 복지증진분야에 4,067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관련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농어촌뉴타운 조성, 농어촌 생활인프라 확충이 추진되고,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지원으로 정부비축쌀 할인 공급확대, 농어업인 복지확대, 쌀감 보급 및 Green Heart 운동 전개, 귀농·귀촌 지원 등이 시행되며, 그밖에 농어촌 산업 활성화로 농어촌 향토산업 육성과 농어촌 체험·관광산업 촉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업인 복지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먼저 농어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일정액 및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451천세대에 총 135,634백만원 규모로 추진하였고, 2009년에는 499천세대, 총 170,704백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연금보험료의 경우는 2009년 253세대에 총 91,66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지원대상은 감소하였다.

또한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질병 농어가에는 영농도우미지원(4,732백만원, 인원 13천명)을, 고령·취약농어가에는 가사도우미지원(1,060백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피해 보상(농업인 재해 공제)을 국고 50%, 자부담 50%로 지원하고 있고, 사망시 보상 수준을 단일상품에서 선택형 상품으로 다양화 하고 있다. 농촌출신 대학생에게는 무이자 학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농어업인 영유아(0-5세)에 대한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민의 정주 의욕 고취 및 농어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재원구성은 농특용자 10%, 국민주택기금 60%, 지방비 30%로 되어 있다.

<표 4-2>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농가연평균 소비지출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비와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비의 경우 2003년 1,356천원에서 2008년 1,838천원으로 35.5% 증가하였는데, 가계지출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2.6%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보아 농가의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2> 농가 연평균 소비지출(2003-2008)

단위: 천원

연도	가계 지출	소비 지출											
		소계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기타 소비지출
2003	24,063	18,162	4,575	452	974	511	581	1,356	874	461	2,035	1,749	4,593
2004	24,691	18,386	4,823	403	994	510	553	1,476	749	574	2,056	1,935	4,314
2005	26,649	19,378	4,998	475	1,067	505	585	1,613	756	602	2,176	2,152	4,449
2006	28,461	19,891	4,967	490	1,088	508	582	1,578	740	668	2,238	2,300	4,731
2007	28,048	20,510	5,152	495	1,121	498	584	1,716	759	683	2,285	2,531	4,685
2008	27,102	20,328	4,992	452	1,209	500	546	1,838	649	638	2,404	2,820	4,279

자료: 통계청, 「2008 농가경제조사」 2009

농가의 연평균 비소비지출에 있어서 공적연금(2006년 이후)과 교육비 보조(2004년 이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보험은 2006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험 성격의 지출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4-3> 참조).

<표 4-3> 농가 연평균 비소비지출(2003-2008)

단위: 천원

연도	가계지출	비소비 지출						
		소계	가계부문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타 비소비지출		
						소계	교육비 보조	기타
2003	24,063	5,901	294	319	375	4,913	1,195	3,719
2004	24,691	6,305	299	339	358	5,309	1,207	4,102
2005	26,649	7,271	396	345	326	6,204	1,286	4,918
2006	28,461	8,571	431	370	308	7,461	1,118	6,343
2007	28,048	7,538	471	368	349	6,351	1,055	5,295
2008	27,102	6,773	377	331	371	5,694	978	4,716

자료: 통계청, 「2008 농가경제조사」 2009

이밖에 젊은 인력의 농어촌 유치로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비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8,137억원이 책정되었고, 농촌다음의 유지와 보전,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약 1,26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3) 보건복지가족부의 농촌복지 정책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크게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 및 보건산업의 육성,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시스템 개선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지원 등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을 통한 복지 확대,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보호체계 구축 등을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와 먹을거리 안전강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 및 보건산업의 육성을 위해 먼저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추진하고,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산업과 보건산업(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을 육성하며, R&D지원 강화 등 보건의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시스템 개선을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바우처제도 확대, 그리고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을 실천하고 있다.

<표 4-4>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현황(기금제외)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10조 1,339억원이던 예산이 2007년에는 11조 6,594억원, 2008년 16조 3,033억원, 2009년 19조 7,1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로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분야, 취약계층지원분야, 공적연금분야,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 노인·청소년분야, 사회복지일반, 보건분야, 보건의료분야, 건강보험 등이 있다.

2009년 기준으로 각 항목 가운데 사회복지분야가 14조 5,615억원으로 전체 73.9%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7조 9,731억원, 보건 5조 1,484억원, 건강보험 4조 1,777억원, 노인·청소년 3조 2,020억원, 보건의료 9,707억원, 취약계층지원 9,223억원, 사회복지일반 6,256억원 순으로 집계된다.

<표 4-4>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현황(2006-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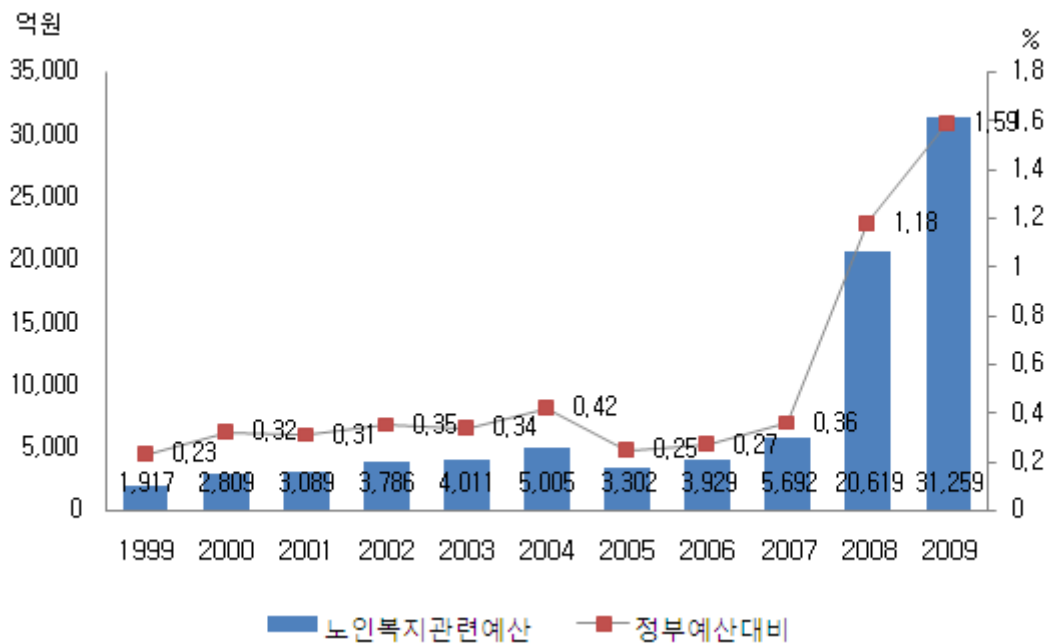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예산	구성비 (%)	예산	구성비 (%)	예산	구성비 (%)	예산	구성비 (%)
계	101,339	100	116,594	100	163,033	100	197,100	100
사회복지	65,301	64.4	81,544	69.9	121,535	74.5	145,615	73.9
기초생활보장	53,418	52.7	65,759	56.4	72,644	44.6	79,731	40.5
취약계층지원	5,353	5.3	7,202	6.2	8,189	5.0	9,223	4.7
공적연금	673	0.7	5	0.0	1	0.0	3	0.0
보육·가족 및 여성	269	0.3	351	0.3	15,834	9.7	18,381	9.3
노인·청소년	4,065	4.0	5,690	4.9	21,216	13.0	32,020	16.2
사회복지일반	1,522	1.5	2,537	2.2	3,652	2.2	6,256	3.2
보건	36,038	35.6	35,050	30.1	41,498	25.5	51,484	26.1
보건의료	3,788	3.7	3,940	3.4	6,198	3.8	9,707	4.9
건강보험	32,250	31.8	31,110	26.7	35,299	21.7	41,777	21.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연보(2009)

또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가운데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3조 1,259억원으로 정부예산의 1.6%,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0년전에 비해 약 16.3배 증가한 수치로 2008년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1월), 노인장기요양보험(7월)의 수급대상자의 확대(전년 대비 1조 640억원 증가)에 기인한다(<그림 4-7>, <표 4-5> 참조).

<그림 4-7> 노인복지 관련예산 추이



<표 4-5> 노인복지 관련 예산

단위: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노인복지관련예산	1,917	2,809	3,089	3,786	4,011	5,005	3,302	3,929	5,692	20,619	31,259
정부예산대비	0.23	0.32	0.31	0.35	0.34	0.42	0.25	0.27	0.36	1.18	1.59
복지부예산대비	4.61	5.29	4.14	4.89	4.72	5.42	3.82	4.05	4.94	13.25	16.22

주 : 기초노령연금 : 현재 노후 빈곤세대가 공적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도입한 한시적 공적부조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백서」, 「주요업무참고자료」, 각년도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4년 1월29일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어촌 지역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 방법, 재원조달 등이 담겨진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2005년 6월 16일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수립하였다.

총 투자규모는 2조 9,331억원으로 연평균 12.6% 증가하였고, 국비 2조 1,399억원(총 투자 규모의 73%), 지방비 7,932억원(전체의 2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된 농특회계와 국가 중기개정 운용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 및 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표 4-6> 참조).

<표 4-6> 연도별 투융자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연도별 투융자 계획						'05-'09 평균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총계	4,373	5,686	5,932	6,423	6,917	29,331	12.6
국비	3,172	4,163	4,361	4,712	4,991	21,399	12.5
일반회계	601	914	961	1,007	1,044	4,527	16.4
농특회계	1,992	2,701	2,850	3,057	3,201	13,810	13.3
기금	579	548	550	648	737	3,062	6.6
지방비	1,201	1,523	1,571	1,711	1,926	7,932	12.9

자료: 2008 보건복지가족부백서(2009)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2008년 12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4만 가구, 153만 명 정도이며 농어촌인 수급자는 11,479명 정도이다. 농어민에게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기초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즉, 논농업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등 보조금, 보육료·대출금 이자액 중 일부를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 기준의 일부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 나) 사회복지 서비스

급격한 농어촌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치매노인 그룹홈('08년 39개소 신축) 및 재가노인복지센터('08년 12개소 신축)를 설치하고,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2개소를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06년 283→'08년 437개소)을 설치하고, 야간·휴일 등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매년 500여명), 정부지원보육시설 차량운영비('08년 3,273개소) 지원 등 만 5세아 무상보육을 2006년에 농어촌지역부터 실시('08년 29,918명)하고 있다. 또한 아동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06년 269→'08년 650개소)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아동의 일상생활 보호와 지도를 위한 그룹홈('08년 9개소)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농어촌 실정에 맞는 장애인 직업생활시설('07년 26→'08년 30)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장애인의 거주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및 목욕실 개조, 문턱 제거 등 주택개조사업('06년도부터 매년 1,000가구씩)을 추진한다.

## 다) 사회보험

우리나라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수는 2008년 12월 기준 현재 지역가입자 17,743천명(8,058천세대), 직장가입자 30,417천명 등 48,160천명이다. 이중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받는 농어민은 484천세대이다.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를 위하여 2005년 농어민에게 기존보험료 22% 경감에 농특예산 18%를 추가하여 최대 40%를 지원하였고, 2006년 농특예산을 28%로 확대하여 최대 50%를 지원하였다. 휴·폐경농지,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및 양식장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20%를 감액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는 등 보험료 부과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한편 2008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8,781천명, 직장가입자 11,493천명, 임의가입자 28천명 등 18,335천명이며, 이들 중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농어민은 278천명이다.

## 라) 보건 의료 기반 개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며, 농어촌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설비 현대화와 병상확충 등을 위한 용자 및 국공립종합전문요양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병원에 공공보건의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한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시설개선 226개소, 장비지원 180개소) 및 공공병원(40개소) 노후시설 현대화, 원격보건 시스템(tele-health)구축 등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고,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우선 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육성('06년 28→'08년 40개소)을 통해 응급의료접근성과 구급차 응급장비 보강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인프라를 구축한다.

## 5. 농가의 행복도 개선 대책

### 가. 요약

본 연구는 심리학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촌 마을의 행복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농업인의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수준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인의 행복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긍정적 정서와 미덕,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농가의 행복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행복은 지혜와 지식,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감, 절제력 등 긍정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 미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행복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휘하여 얻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들로 하여금 영속적인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면 이러한 미덕과 대표 강점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농가(805)와 비응답(807)농가의 일반적 특성과 행복도를 물질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물질적·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 연령은 59.4세이고, 벼 재배농가가 전체의 6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2.7ha로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평균 농지 소유면적보다 높았다. 또한 가계소득은 3,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주관적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가난하지 않다'고 응답한 농가가 전체의 67.1%에 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거의 모든 농가가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의 농사일에 적성이 맞다'고 응답한 농가는 48.1%에 불과하였다. '외롭다'는 의견이 전체의 46.3%를 차지하고, 의료수준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이며, 현재의 삶이 불행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6.6%인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지역별로 나타난 농가의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강원 지역이 가장 낮고, 충남, 전북, 경남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사경력은 평균 약 32년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없으며, 경지면적에 있어서는 경남과 제주지역이 가장 작고, 전북지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정도는 강원, 경남, 경북지역이 낮고, 전남, 제주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은 전북, 전남, 제주지역에서 낮게, 강원, 경남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 정책 만족도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가장 낮으며, 농사일 참여도는 전북, 제주지역이 낮고, 강원, 경남지역에서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농업인의 13.1%가 삶의 질이 높다고 응답했고, 도시민은 19.3%로 6.2%p 의견 차이를 보였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질적 요인(사회경제적 요인)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 활발할수록, 건강할수록, 의료수준이 높을수록 더 행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주지역에 비해 강원지역과 경북지역 농가가 행복도 점수에 있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과 행복도와의 상관성은 약하며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과의 관계 역시 매우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행복도를 높일 수 없으며 미덕과 심리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행복도와 관련성을 지님으로써 이들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심리적 요인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덜 외로울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농사일 참여가 낮을수록, 농사일 적성도가 높을수록, 주택수준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긍정적 정서를 실현할수록 농가들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덕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혜와 지식, 영성과 초월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소득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은 농가에서 미덕의 발현 정도가 높았고, 이와는 반대로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에서는 미덕의 발현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경지면적은 미덕의 실현 정도와는 무관하고, 다만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에서 경지면적과는 무관하게 미덕의 실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영농경력이 긴 농가(30년 이상)일수록 대부분의 경지면적에서 미덕의 실현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경지면적과는 무관하고, 영농경력이 긴 농가보다는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에서 훨씬 더 높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농사일 참여도와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와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긍정적 정서의 발현 정도가 높은 농가에서 농사일 참여도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농사일 적성도와 소득수준과의 연관성 역시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사일 적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농사일 참여도에 따른 미덕과 긍정적 정서의 실현정도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고 농사일 참여도가 높은 농가에서 미덕과 긍정적 정서의 실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의 농업인에 있어서 농사일 참여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의 실현 정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동시에 연령에 따른 긍정적 정서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경력과 농사일 적성도에 따른 미덕의 실현정도에 있어서는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일수록 농사일 적성도와 무관하게 미덕의 실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영농경력이 긴 농가일수록 농사일 적성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농가만이 미덕의 실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외로움과 건강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에 있어서는 건강하고 외로움 정도가 낮은 농가에서 미덕의 발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한 농가의 농사일 참여도가 높을수록 미덕의 실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수준과 농사일 참여도에 따른 미덕의 실현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농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을 비롯한 물질적요인 외에 심리적요인, 그리고 긍정적정서와 미덕이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심리적요인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이러한 심리적요인은 긍정적정서와 미덕과의 높은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정서와 미덕은 대표적인 강점의 발휘를 통해 함양되고, 동시에 행복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대표 강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농업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행복도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나. 개선 대책

### 1) 경제적요인 강화 정책

#### 가) 저소득층 농가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빈곤에 처한 농업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인들이 농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낮은 소득’(50.6%)을 꼽은 점과, 본 연구 분석결과에 나타난 소득이 적고 고령농 일수록 미덕의 발현정도가 낮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농가를 중심으로 소득보장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대책을 들 수 있는데, 우선 합리적으로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고, 지역의 특성, 가족 유형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근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농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쌀소득고정직불제(농특)와 경영이양직불제(농특),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농특) 등 직불제의 산정기준들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중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영농정책

지금의 영농규모 확대 일변도의 정책에서 중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영농정책에로의 부분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지면적과 행복도와는 무관하고, 60세 미만의 젊은 농가의 경우 연령이 낮고 농사일 참여도가 높은 농가에서 미덕과 긍정적정서의 실현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젊은 층의 농가에게 있어 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은 일리가 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비록 농사일 참여도

가 행복도와는 역관계에 있지만, 신체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있는 농가일수록 긍정적 정서가 발현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고령 영농인에게 적정규모의 경작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이들 고령농을 한국 농정의 중요 대상집단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비경제적요인 강화 정책

### 가)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강화

우선,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전보다 공공보건의료 환경이 나아지긴 하였지만, 농촌지역의 보건의료는 하드웨어측면에서나 소프트웨어측면에서 아직 도시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24시간 응급실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적정수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위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원격진료 등 고령환자들의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보다 용이하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보건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구강보건실에 대한 기능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치과이동차량 지원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확대하여 고령농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지원대상을 넓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의 치료중심의 역할에서 건강증진 및 재활사업 등으로 전환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단위 농가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주 방문의료 서비스가 행해져야 하고, 진료 후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역농업인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치료와 질환 및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나) 국민연금제도 개선

저소득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소득 농업인의 경우 지원수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거나 지원에서 제외하고, 절감되는 재정을 저소득 농업인에게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업인이 국민연금제도에 편입되도록 한다.

### 다) 국민건강보험료 개선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라)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마련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즉, 농업인들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상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드는 농업노동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여생을 즐기고, 즐겁게,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시군민 센터나 면단위센터 활용)을 개발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 주거환경 개선

주택보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 주거현황은 자가가구의 비율이 높고 임대료 수준이 낮아 주거 안전성 측면에서 임차가구의 비율이 높은 도시지역보다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설비 미달가구 비율이 높아 주거시설 측면에서 질적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농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바) 영양공급체계 구축

농촌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 알 수 있듯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일수록 균형잡힌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식사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농촌의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지침을 만들어 그 지역특산물과 제철과일을 이용하고, 또한 그 지역의 마을 부녀자들을 활용하여 식생활 영양관리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사) 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교육 개발

농업인의 교육수준, 주요 작목(벼, 밭작물, 특용작물)을 잘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행복도에 있어서 학력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농업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영농교육은 영농교육 교재 및 강의내용이 대체로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너무 어려워 이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력이 낮은 농업인이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강의내용 구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부 록

### 농가 행복도 설문조사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의 농업인의 행복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귀 통신원을 대상으로 9월18일부터 10월7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향후 농촌 복지정책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조사기한 안에 회송용 봉투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사에 밝히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쓰이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연구책임자: 이태호 교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아래 해당란을 반드시 채워주십시오

통신원 ID      (현지통신원 번호 5자리)

입금  
계좌번호  은행: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응답시 주의사항

- 설문서의 작성 시 순서에 따라 답해 주십시오.
- 번호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가장 적당한 번호를 선택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02-880-4730, 휴대폰) 000-000-0000



## 설 문 조 사 내 용

### 1. 설문 응답자 일반사항

※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① 남자 <span style="margin-left: 100px;"></span> ② 여자
2	연 령	만 (            ) 세
3	키	(            ) cm    예) <u>173</u> cm
4	몸무게	(            ) kg
5	학 력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이상
6	업 종	① 농업                                  ② 임업                                  ③ 수산업
7	현업 종사 경력	19    년부터 현재까지 (약        년)
8	주 작 목	① 미곡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시설채소 ⑤ 특작    ⑥ 인삼    ⑦ 축산            ⑧ 기타 (            )
9	경지 면적 (자작지와 임차지 합계)	논 (            ) 평    자작지 (            ) 평 밭 (            ) 평    자작지 (            ) 평 합계 (            ) 평    총 자작지 (            ) 평
10	2008년 판매액	약 (            ) 만원
11	부채와 저축	부채: (            ) 만원,    저축: (            ) 만원

\* 8번과 9번은 업종이 농업인 경우만 응답 바랍니다.

## 2. 설문 내용

※ 아래 물음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결혼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혼                                      ② 미혼

2. 귀하는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 귀하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십니까?

- ① 함께 생활한다                              ② 따로 떨어져서 생활한다

4. 귀하의 연간 가계소득을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소득,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소득, 재산소득 등의 합계)

- ① 500만원 미만                              ② 500~1,000만원                              ③ 1,000~2,000만원  
④ 2,000~3,000만원                              ⑤ 3,000~4,000만원                              ⑥ 4,000~5,000만원  
⑦ 5,000~7,000만원                              ⑧ 7,000만원~1억원                              ⑨ 1억원 이상

5. 요즘 생활에서 외롭다고 느끼시는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① 자주 있다                                      ② 때때로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6. 비슷한 또래의 분들과 비교하여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정부의 농업인 정책에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 못한다                                      ② 별로 만족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9. 농사일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종종 참여한다      ⑤ 전적으로 참여한다

10. 현재 농사 일이 자신의 적성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맞지 않는다      ② 별로 맞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맞는 편이다      ⑤ 아주 잘 맞는다

11. 여행이나 운동(춤)을 자주 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별로 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 하는 편이다      ⑤ 자주 한다

12. 친목모임에 자주 참가하십니까?

- ① 전혀 참가하지 않는다      ② 별로 참가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 참가하는 편이다      ⑤ 자주 참가한다

13.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몇 개입니까?

- ① 4개 이상      ② 3개      ③ 2개  
④ 1개      ⑤ 없음

14. 물건을 들 때 허리나 다리 등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아프다      ② 조금 아프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아프지 않다      ⑤ 전혀 아프지 않다

15. 화장실을 가거나 길을 걸을 때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자주 필요하다      ② 때때로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6. 최근 1년간 돈이 없어서 균형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 섭취)를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① 매달 한 번 이상      ② 두세달에 한 번      ③ 서너달에 한 번  
④ 1년에 한두 번      ⑤ 전혀 없었다

17.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조금 불만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8.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병원이나 보건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 ① 4시간 이상                      ② 2-4시간                      ③ 1-2시간  
④ 30-60분                              ⑤ 30분 미만

19.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교육환경(학교, 학원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조금 불만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0.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의료환경(병원, 보건소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조금 불만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아래 물음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1. 나는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 ①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 ② 조금 불행한 사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행복한 사람이다
- ⑤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2. 내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

- ① 훨씬 불행하다
- ② 조금 불행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행복하다
- ⑤ 굉장히 행복하다

3. 일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상관없이 최대한 현재 삶을 즐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즐기는가?

- ① 전혀 즐기지 않는다
- ② 거의 즐기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즐긴다
- ⑤ 아주 많이 즐긴다

4. 일반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얼마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아주 많이 불행하다
- ② 조금 불행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행복하다
- ⑤ 아주 많이 행복하다

5. 당신이 중요한 일을 깜박 잊어버렸다면 그 이유는 주로

- ① 매사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다.

6. 당신이 친구에게 화를 내게 된다면 그 이유는 주로

① 그 친구가 당신을 들볶았기 때문이다.

② 그 친구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이다.

7. 당신이 피곤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주로

①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② 매우 바빴기 때문이다.

8.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언짢은 말을 한다면 그 이유는 주로

① 그 친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그 친구에게 기분 안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9. 당신의 노력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이유는 주로

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② 당신의 방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 아래 문장이 자신을 매우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2, 전혀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0,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면 1을 괄호 속에 써 넣어 주십시오.

1.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 )
2. 매사에 쉽게 싫증을 낸다. ( )
3.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큰 흥미를 느낀다. ( )
4. 박물관 같은 교육적 장소에 거의 가본 적이 없다. ( )
5. 판단력이 필요할 때는 아주 냉철하게 생각한다. ( )
6.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 )
7. 일을 할 때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 )
8.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 )
9. 어떤 단체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다. ( )
10.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둔감하다. ( )
11. 항상 꼼꼼히 생각하고 더 큰 것을 볼 줄 안다. ( )
12. 내게 도움말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 )
13.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지킬 때가 많다. ( )
14. 고통과 좌절 때문에 내 의지를 굽힐 때가 많다. ( )
15.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 낸다. ( )
16. 일을 할 때 딴 짓을 할 때가 많다. ( )
17.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 )
18. 친구들이 내게 솔직한 말을 해주지 않는다. ( )
19. 자발적으로 남을 도와준다. ( )
20. 남의 일에 내일처럼 기뻐한 적이 거의 없다. ( )
21. 내 행복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 ( )
22.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 )
23. 단체에 가입하면 최선을 다한다. ( )
24. 소속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 ( )
25.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 )
26.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힘들다. ( )
27. 잔소리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단합해 일하도록 할 수 있다. ( )
28. 단체활동을 조직하는 데는 소질이 없다. ( )
29.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 )
30.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 )
31. 다칠 위험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 )

- 32. 나쁜 친구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있다. ( )
- 33.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린다. ( )
- 34. 스스로 한 일을 자랑하는 편이다. ( )
- 35. 예술, 영화, 스포츠, 학문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적이 있다. ( )
- 36. 평소에 아름다움과는 무관하게 지낸다. ( )
- 37. 하찮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한다. ( )
- 38.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 )
- 39. 매사에 긍정적인 면만 본다. ( )
- 40.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해본 적이 없다. ( )
- 41.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 ( )
- 42. 사명감이 없다. ( )
- 43.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 ( )
- 44. 기어코 복수하려고 애쓴다. ( )
- 45. 일과 놀이를 잘 배합한다. ( )
- 46. 우스개 소리를 거의 할 줄 모른다. ( )
- 47. 무슨 일을 하던 전력투구한다. ( )
- 48. 의기소침할 때가 많다. ( )

※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구재선, 「행복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 23, No. 1, 165-179. 2009.
- 김동원·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김숙경,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연구』, Vol. 23, pp. 179-202. 2004.
- 박영신·김의철,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 15, No. 1(특집호), pp. 95-132. 2009.
- 신은영, 「농촌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오승환·윤동성,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농촌·어촌지역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여름호 통권 32호, pp. 119-147. 2006.
- 이광모·김형준·박재홍, 「농촌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형 연구: 강원도 횡성군을 사례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2권 제2호 145-169. 2008.
- 이수정·안신호,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한 연구 개관」, 『심리과학연구』, Vol. 4, pp. 123-143. 2005.
- 정영은 외, 「긍정심리학 배경의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이용한 행복 증진 기법 개발 - 참가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 8, No. 2, pp. 51-62. 2008.
- 조홍식, 「한국농촌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농업생명과학연구』, Vol. 36, No. 3, 87-96. 2002.
- 마틴 셀리그만, 김인자 옮김, 『긍정심리학』, 도서출판 풀무레, 2006.
- 민인식·최필선,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한국STATA학회, 2009.
- Fredrickson, B. L. "Positive emotions. In C. R. Synder & S. J. Lopez(Ed)", Hanc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120-134.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William H. Greene, Econometric Analysis 6th, Pearson, 2008.